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더불어 살며 감싸 안으며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0년 8월 8일 (토) 제 1788호

□ L. 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예수님은 '감염과 혐오 논리' 초월하셨다!

CT, 플러신학교 심리학과 브래드 스트론 교수의 '팬데믹 시대, 크리스천들이 포용해야 하는 이유' 보도

신선한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받았다고 상상해보라. 하지만 주스 속에 바퀴벌레를 떨어뜨리고, 이리저리 휘젓고, 바퀴벌레를 제거한 후, 잔을 건네준다. 당신은 그것을 마실 것인가? 물론 마시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실험자가 같은 주스 잔을 가져가서 수돗물을 정수하는 데 사용하는 필터로 그 주스를 거르고, 끓여서 살균하고, 다시 한 번 더 여과한다고 상상해보라. 이제 주스를 마실 것인가? 그래도 당신은 이 실험에 참가한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마시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지적으로 주스가 '깨끗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떤 본능적인 이유로는 그것을 마실 수 없을 것이다. 이 본능적인 반응은 심리학자들이 혐오라고 정의하는 것이며, 이 반응을 감염심리라고 한다. 역겨움에 관한 한 우리의 이성 과 감염심리는 서로 상충될 수 있다.

이제 이 문제가 주스와 바퀴벌레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라고 상상해보라. 그리고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누군가와 접촉한다. 이 바이러스가 치명적일 수 있다면? 이 사람들과 접촉하거나 악수를 하거나 그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할 용의가 있는가?

전염병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이후에도 미국인들이 다시는 악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파우치는 악수를 제거함으로써 인플루엔자와 같은 전염병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고든칼리지 생물학교수 크레이그 스토

리는 조심스러운 어조로 교회에서의 더 나은 위생관행이 질병의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감염심리학에 따르면 이는 오히려 과민반응을 일으켜 우리의 정신건강에 필요한 인간적 접촉의 결핍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감염의 첫 번째 고비를 넘기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교회에서 포용과 악수를 하는 것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평화의 통과' 즉 손을 얹는 것, 기쁨을 보는 것은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소모임, 교제, 사적 모임, 예배를 어떤 형태로든 다시 재개했고 일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현재 우리는 온라인예배가 드러지는 이 시기에 교회축복과 심지어 재정적인 기부조차도 실제로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증명됐기 때문에 이 소강상태에서 온라인예배를 고수하는 것이 더 안전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은 없을까? 이 대유행이 공식적으로 종식 되면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가? 우리는 모든 신체적 접촉과 근접을 제거한 채 안전을 선호할 것인가? 우리는 여전히 안전을 위해 온라인으로 회의에 참여하기를 원할까? 감염사례, 입원, 사망 수의 증가에 따라 사회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Why This is the Christian Side Hug's Moment: Will our disgust for germs get the best of us? A psychologist weighs the risks and benefits of human touch in a pandemic)?

혐오의 숨겨진 논리

무엇이 안전한 행동인지에 대한 의견은 매우 다양하다. 공중 보건전문가 다니엘 진은 지역 보건자료를 바탕으로 교회에서 직접 만나는 것을 엄격히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리고 파우치처럼 일부 역학자들은 안전과 보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활동을 삼가야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511명의 역학자들에게 언제부터 사람들이 포용하거나 저녁 파티를 하거나 활동을 하며 다시 휴가를 갈 수 있는지 예상하는지 물었다. 답변은 광범위하게 나뉘었지만 42%는 1년 이상 포용과 악수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39%는 3-12개월의 기간



를 예상하고 있다. 이 관점에서 긴밀한 접촉을 감시해야 하며, 새로운 온라인 세계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의견이 위험을

과대평가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또 다른 최근의 기사에서 공중질병전문 전문가에게 포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물었다. 공중 입자를 연구하는 과학자 린지 마르는 바이러스를 잡는 데

필요한 복용량을 고려한 수학적 모델을 기준으로 측정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포용할 때의 위험은 실제로 상당히 낮지만 마스크를 쓰고 울거나 기침을 하거나 말을 하지 않고 그 후에 손을 씻는 등 더 안전하게 포용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방 조치를 제공했다.

일반 대중의 의견에 따르면 파우치와 다른 전문가들이 신체 접촉을 격정하는 견해를 존중한다면, 그것은 '혐오의 심리학'에서 발견되는 더 깊은 무의식적 동기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매일 TV에서 보는 작고 울긋불긋하고 뾰족한 코로나바이러스 단백질이 우리 모두에게 혐오감을 유발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3면으로 계속)



7월 30일 뉴욕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Let's Go Together For the Future!"

뉴욕할렐루야대회 강사 황성주 목사, 마이클조 선교사

뉴욕한인교회협의회 최대 연례행사인 뉴욕할렐루야대회가 팬데믹 시대에 현장집회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회장 양민석 목사는 지난 7월 30일 교협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20년은 팬데믹 상황에서 어려움이 많고 영적 침체에 있는 교계에 교협이 자극을 주고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며 "지금까지 사역을 위해 사람이 동원됐다면 이번에는 성도와 목회자들을 위해 필요한 사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 목사는 뉴욕 엠파이어스타이트 빌딩이 미국의 경제공황 시기에 건축된 것처럼 어려운 시기에 할렐루야대회가 개최됨으로 뉴욕 교계에 영적부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양민석 목사는 "강사선정에 교단을 고려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차세대에 대한 막연함이 아닌 뚜렷한 방향제시를 할

수 있는 마이클조 선교사와 코로나시대에 건강과 생명에 관심이 많아진 만큼 황성주 박사를 초청했다고 소개했다.

이번 할렐루야대회 주제는 현 교협 표어인 "Let's Go Together"에 "For the Future"를 덧붙였다. "건강과 영성, 1세와 2세가 미래를 향해 함께 가자는 의미"라고 양 목사는 밝혔다.

양민석 목사는 "강사 후 분이 모두 한국에서 오는데 폐쇄화 수락자들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또 장소는 프라미스교회로 교회방역 지침에 따르며 참여인원 300명으로 제한하고 온라인 동시 생중계한다.

또한 연합집회는 재정문제가 뒤따르는데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어려울 수 있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은희곡 목사



푸른초장 김홍석 목사



팬데믹 시대의 선교... 호성기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성경암, 상급대, 그리고 자녀들의 상한 마음지우를 돕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한부모 가정 모임
LA 비전교회 협력사역
520 S. Lafayette Park Pl #200
213-386-9191, 949-627-1452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chpress.net | 323-737-7699, 800-669-0451
1027 J.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경공부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www.rptseast.org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신학교신학교

하나님의 주권 아래 탁월함을 추구하는 신학교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2020년 가을학기 입학안내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기 그 귀한 소명자를 훈련시키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개혁주의신학과 이민목회 현장을 겸비한 교수진, 세계의 복음 현장을 누비는 자랑스런 동문, 예수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재학생, 그리고 따뜻한 교직원들이 함께 기다립니다.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 아시아 신학연맹(Asia Theological Association)의 준회원입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직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특별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졸업생은 원할 경우 2년 인턴과정 후, 심사를 거쳐 개혁교회 지원함.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대학부	신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목회학 석사	3년	
대학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 석사	2년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신학교 부설 평신도 어학원, 신학원			세례교인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부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 2매
- 6 입학 전형료 (\$30)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서접수마감 : 2020년 9월 4일(금) 오후6시
- 2 원서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3 입학시험 : 2020년 9월 5일(토) 오전11시
- 4 개강부흥회 : 2020년 9월 8일(화)~9월 10일(목)
- 5 문의처 : Admission Office / 학감, 교무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rptseast.org 718-463-7163
학감 허윤준 목사 718-637-1470

동부개혁신학교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 발행인 칼럼 ●

팬더믹 이후의 세계관



김성국 목사
(린즈장로교회 담임)

팬더믹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될까? 누구나 궁금해 한다. 모든 사람들이 많은 변화들이 있으리라 예측하고 그런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 모든 것이 바뀌는데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어떻게 될까? 기존의 세계관과 전혀 다른 세계관이 형성될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현존하는 세계관은 일단 다음 여섯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신의 존재와 인간의 자율성을 인정하지만 신이 개입해서 계속 섭리하신다는 기독교 세계관. 둘째, 신의 존재와 인간의 자율성을 인정하지만 신은 우주를 시계태엽 감듯이 자연법적으로 감아 놓고 신을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신론적 세계관. 셋째,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인간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자연주의 세계관. 넷째, 신의 존재와 인간의 자율성을 함께 부인하며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하는 허무주의 세계관. 다섯째, 신의 존재와 인간의 자율성을 희미하게 인정하며 뭔가 존재의 이유를 찾으려는 실존주의 세계관. 여섯째, 신의 존재와 인간의 자율성을 혼동하며 합쳐버린 범신론적 세계관.

이 여섯 세계관은 자기들의 영역에서는 반짝거리며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왔다. 팬더믹 이후에 이런 기존 세계관들은 붕괴되거나 변형되어서 또 다른 세계관이 등장할 것인지는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세계관은 그들의 신관(神觀)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세계관들을 비집고 들어올 새로운 세계관의 등장보다는 새로운 사조(思潮) 정도가 한동안 유행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미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세계관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반짝거리다고 다 금은 아니듯이 모든 세계관 가운데 참다운 세계관은 하나뿐이다. 다음 아홉 기독교 세계관이다.

기독교 세계관도 강조점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되니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무조건 다 바르다고 할 수는 없다. 금 가운데 정금이 있듯이 정금 같은 기독교 세계관이 있는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도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된다. 이 땅을 철저히 외면하는 내세 지향적 기독교 세계관. 이 땅을 철저히 동화되는 세상 지향적 기독교 세계관. 이 땅에서 개인의 신앙 윤리를 강조하는 개인 지향적 기독교 세계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주권적 세계관. 이 모든 세계관 중에 가장 탁월하고 포괄적인 세계관은 마지막 주권적 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

주권적 세계관이란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자 하는 열망을 지속적이고도 힘 있게 표현하는 세계관이다. 이 세계관은 하나님을 향한 진지함과 함께 세상을 향한 포용력과 자신을 향한 겸손을 동시에 보여주는 세계관이다. 주권적 세계관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관점으로 역사와 우주를 해석한다. 사람들은 코비드 19을 통해 자신들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모든 영역에서 처절한 좌절을 맛보았다. 코비드 19은 인간의 한계와 함께 하나님의 주권이 어떠한가를 너무나 잘 보게 해주었다. 그렇다. 팬더믹 이후의 세상은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 수 없고 그런 것을 만들겠다고 헛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다. 팬더믹으로 초도화된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은 정직히 하나님 주권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절실히 요청하는 것이다.

누구나 자기의 세계관을 포기하기 어렵다. 그러나 팬더믹 이후에도 헛된 세계관을 붙잡고 살아갈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저민다. 지난 세기에 프란시스 웨퍼에 의해 던져졌던 질문이 팬더믹 이후를 살아갈 우리에게도 또 다시 던져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말해 "우리는 과연 우리를 살릴 세계관을 든든히 붙잡을 지혜와 세상을 이끌 세계관을 힘 있게 외칠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실업급여도 십일조 해야 하나?

CT, 교회재정전문가 더글라스 르블랑의 십일조 조언 보도

미국인 2500만 명 가량의 생계가 걸린 주당 600달러의 연방 실업수당 지급이 지난 7월 25일자로 끝나면서 '소득절벽(income cliff)'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의회와 행정부가 충격 완화를 위해 부양책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의 '동상이몽'으로, 언제 어떤 식으로 통과될지 불확실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소득절벽이 현실화하면 미국의 소비경기는 물론 증시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의 가장

큰 비극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겪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장기 실업'일 것이다. 선한 목적을 갖고 성실히 일한 근로자들이 일자리에 버는 수입이 아니라 정부 보조금으로 살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주는 실업수당도 십일조를 해야 되는지 선한 크리스천들은 고민하게 된다. 십일조 분야의 전문가 더글라스 르블랑(Douglas LeBlanc, "Tithing: Test Me in This"의 저자)은 "기쁨으로 드린다면" 문제가 없다고 조언한다.

미국의 인기 록밴드 도어스의 드러머로 오랫동안 활동한 존 덴스모어는 존 레논과 오노 요코가 '플레이보이' 인터뷰에서 십일조를 높게 평가하는 것을 듣고 십일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더 네이션'에 기고한 글에서 덴스모어는 십일조 덕분에 탐욕을 억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올리버 스톤 감독이 만든 우리 밴드에 대한 영화가 나왔을 때 음반 로열티가 3배로 치솟았다. 십일조를 내는데 손이 떨렸다."

2008년 내(Douglas LeBlanc)가 십일조에 대한 책을 출판할 때 받은 사전 계약금의

뻘한 위선에 대한 혐오감 외에 또 무엇 때문이었을까? 주로 이 때문이다. 십일조를 내는 자발적 훈련과정에는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혼란의서와 같이 빠져나갈 예외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실직자뿐만 아니라 이유를 대자면, 그 누구라도 십

이면 십일조 하지 않아도 좋다.

하나님이 희생을 요구했다고 억울해하는 이들도 있다. 이 경우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감정을 없애주실 것을 바라며 십일조를 작정하는 것

치스러운 옵션이 아니다. 십일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탐욕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을 치유하고, 당신의 끝없는 자비로 가까이 두시기 위해 고대부터 사용하신 영적 방법이다.

불과 몇 년 전 나는 생업에 관련해 사막을 걷는 것 같은 경험을 했다. 실직한 형제자매를 위해 이러한 경험에서 우리나라의 기도를 하고 싶다. 불안하고 두려운 시간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보살펴주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바란다.

삶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목표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십일조: 삶의 우선순위 바로 세우기, 탐욕과 두려운 마음 치유 하나님의 자비 베푸시는 영적 방법

십일조를 드리던 것이 기억난다. 당시 손이 떨리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당시는 저널리스트로서, 내 생애에서 가장 척박한 시기였다. 집에 충분한 돈을 벌어들이지 못해 부끄러웠고, 책을 낼 수 있을지도 확신이 없었다.

내가 어떻게 십일조를 계속 낼 수 있었을까? 십일조를 주저하는 마음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의 변

일조를 드리지 않을 이유가 있다. 오직 율법에 대한 의무감에 기쁨 없이 드리는 십일조라면 하지 않아도 된다. 신약이 규정하는 십일조에 대한 명령 때문이라면 드리지 않아도 된다(신약에는 십일조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십일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갚아줄 것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처지

이 아니라면 드리지 않아도 된다.

십일조를 피하려는 이유에 어떤 패턴이 보이지 않는가? 주체감보대출을 2배로 늘려야 할 상황이고, 주변적(朝變夕改)하는 욕망을 끊임없이 만족시키려는 삶을 살고 있다면, 십일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상의 문제다.

십일조는 경제적 안정이 보장된 사람만 할 수 있는 사

누리게 되길 바란다. 예배를 통해, 가진 것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나시는 우리를 보고 계심을 알기를 바란다.

좋은 때나 힘든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계획하신 목적은 그저 수치타산을 맞추고 사는 것 이상의 축복임을 깨닫기 바란다. 위안, 위로, 구원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느끼기를 기도한다.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기독서적/일일세탁/베스트셀러/성구/성화 액자/가운/교회용품/영문성경/영문기독서적
교회·사업체·달력·기념배전문
뉴욕 Tel. (718)762-0011 뉴저지 Tel. (201)346-0030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www.chpress.net
기발한 광고의 주인공이 되세요
미주 지역 매주 7천부 배포, 확실한 광고 효과
347-223-1531 718-886-4400
광고문의: chpress.kjs@gmail.com info@chpress.net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콜성, 담낭, 간 조영검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특수 특수검진 내시경 내시경 세션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의원: 이규성 원장
진료: 안.내 - 지아익(임플란트), - 구강외과, 틀니, - 보철치과, - 미용성형치과, - 신경 및 잇몸치료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 및 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신청 유형: 본인구독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목 사 영 어: _____ 평 신 도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 어 _____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__년__월__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213)674-7982, (323)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담임목사 청빙서

해외한인장로회 은혜의 빛 장로교회는 담임목사를 청빙하고 있습니다. 본 교회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담임목사 자격

- 1) 학력: 장로회 정규 신학대학원 (M.Div) 또는 총회(KPCA)가 인정하는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
- 2) 경력: 목사 안수 후 부목사, 담임목사, 선교사 경력 등을 포함하여 총 5년 이상 퇴신분
- 3) 해외한인장로회(KPCA) 교단 가입에 걸림 사유가 없으신 분
- 4) 이중 언어(한국어/영어)로 의사소통과 설교에 불편함이 없으신 분
- 5) 합법적 미국 체류에 걸림 사유가 없으신 분

2.추천 서류

- 1) 담임목사 청빙 추천서 1부 2) 추천서 작성하시는 분의 소속증명서
- 3) 추천자의 추천서는 2020년 10월31일까지 등기우편으로 1부(우체국 소인 기준) 그리고 이메일 lgkpcsearchpastor@gmail.com 로 1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Light of Grace Korean Presbyterian Church
Attn: Paster Search Committee
68 Morello Ave. Martinez, CA 94553

- 4) 추천서는 본인이 아는 대로 솔직히 기록해 주시며 내용에 대하여 피추천자와 상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심하게 추천할 수 있도록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 5) 추천서 접수 후 추천 받는 분이 공지된 피추천자 제출서류를 제출하셔야 정식 청빙과정을 진행 합니다.

3.청빙위원장은 피추천자에게 의사를 타진하여 청빙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4.피추천자가 추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외합니다(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의사 확인)

5.피추천자 제출서류

- 1) 지원서 1부
- 2) 자기소개서 본인/배우자 각 1부
- 3) 목회 세부 계획서 1부
- 4) 개인 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 5) 목사안수 증명서 및 최종학위증명서
- 6) 최근 설교동영상 3회분

6.제출방법

- 1) 모든 서류는 2020년 11월30일까지 등기우편(우체국 소인기준) 또는 이메일: lgkpcsearchpastor@gmail.com 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Light of Grace Korean Presbyterian Church
Attn: Pastor Search Committee
68 Morello Ave. Martinez, CA 94553

- 2)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3) 서류심사가 통과된 분은 추가서류와 면담을 요청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 문의사항은 청빙위원장/정규법 장로 519-910-3535 또는 총무/유경민 집사 925-822-755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빛 장로교회
Light of Grace Korean Presbyterian Church

예수님은 '감염과 혐오 논리' 초월하셨다!

(1면에서 계속)
 혐오는 인간에게 중요한 기능을 한다. 핵심 혐오는 인간들이 위험한 물질을 섭취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자신의 몸에 무엇을 섭취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돕는 경계 체계처럼 작용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나아가면 위축과 회피를 거쳐 거부, 퇴치, 제거까지 이어질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불편함과 죽음을 피하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혐오감은 또한 도덕적(예: 역겨운 행동), 사회적(예: 역겨운 사람), 종교적 상황(예: 역겨운 부도덕함을 피해야 한다)을 포함한 다양한 다른 자극과 연결되는 "혼잡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혐오는 일종의 비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아빌렌 크리스천대학의 리처드 벡은 그것을 '주술적 사고'라 부른다. 그가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우리는 혐오스러운 것이 우리를 비현실적인 방식으로 감염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문제는 '접촉'의 논리가 적용되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 적용되기 시작할 때 발생한다."

핵심 혐오는 바이러스 같은 것으로 시작되지만 혐오의 비이성적인 논리는 세균에서 사람으로 빠르게 퍼질 수 있다. 폴 로진과 동료들은 이 주술적 사고가 어떻게 혐오의 논리와 감염의 4가지 원리를 초래하는지 설명했다.

첫째, 접촉은 항상 감염으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 감염된 원소의 미세한 양조차도 해롭다. 이것을 최소량 무분별(dose insensitivity)이라고 한다. 셋째, 영구성, 곧 일단 어떤 것(또는 누군가)이 감염되면 정화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부정성 우세, 곧 감염 물질과 순수한 물체가 접촉할 때 감염 물질이 더 강해지고 순수한 물체를 파괴한다는 믿음. 감염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합리적인 지식에도 불구하고(주스는 살균됐다) 감염의 논리는 우리가 떨칠 수 없는 본능적인 느낌을 만들어 낸다. 그리 멀지 않은 예가 에이즈

전염병의 시작이다. 에이즈가 처음 등장하고 대중이 그것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감염을 두려워해 그 환자들은 피하고 외면했다. 전과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워했다. 에이즈 환자들은 자신을 향한 혐오감을 느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잠재적인 보유자들을 역겹다고 규정하는 사람은 상상하기 힘들지 모르지만 발병 초기에 보이는 아시아인 혐오정서를 기억하면 된다. 그러한 반응들은 분명히 인종차별이고 정당하지 않았지만 감염의 논리와 결합된 바이러스에 관한 혼란스럽



고 잘못된 정보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잠재적인 감염 물질로 보기 시작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혐오의 논리를 가진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는 가상 세계가 '충분히 좋다'고, 타인과의 접촉을 제한함으로써 똑똑하고 안전하며 현명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물론 그래야 하지만 혐오라는 주술적 사고 논리는 우리가 비논리적으로 위험을 과대평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한다.

접촉의 중요성

혐오감이 서로를 밀어내게 할 수도 있지만, 심리학 보고서에는 접촉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고아원에서 자란 루마니아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 아기들은 규칙적인 일정에 따라 먹고 기저귀를 차고 목욕을 했지만, 흔들어 주거나 껴안아주거나 하는 사랑의 접촉은 받지 못했다.

14년 동안 이 아이들을 지켜본 연구원들은 아이들이 언어, 인지 기능, 운동 발달, 사회-정서 기능에서 큰 체제를 보였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일부는 정신과 진단을 받을 만큼 심각했다. 한마디로, 지능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 상호작용의 부족이 원인이었다.

인간은 단지 관계를 맺는 것

경전달물질 옥시토신을 방출한다. 유아-부모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초기 경험들이 애착스타일을 형성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분명한 성인으로 연결되는 방식을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어른들의 경우는 어떨까? 확실히 우리의 뇌가 완전히 발달했을 때 접촉은 덜 중요할 하지 않을까? UC버클리대학교 그레이터굿센터의 교수 겸 전무인 다허 켈트너는 그렇지 않다고 믿고 있다. 켈트너는 인간의 손길의 의사소통, 건강, 유대감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믿는다.

한 실험에서 켈트너는 두 피험자를 벽으로 (물리적으로) 분리해 서로 볼 수 없게 했다. 한 피험자에게 한쪽 팔을 벽에 난 구멍에 꽂게 했다. 두 번째 피험자에게는 팔뚝만 만져보고 의사소통을 시도하라는 감정 목록이 주어졌다. 정확한 감정을 정확하게 추측할 확률은 8%에 불과했지만, 켈트너의 연구에서 피험자들은 연민의 감정을 60% 확인할 수 있었다.

접촉은 관대함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켈트너는 참가자들이 "죄수의 딜레마"를 연기하는 관련 연구를 언급하는데, 피험자들은 제한된 금액의 돈을 위해 협력하거나 파트너와 경쟁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경기를 시작하기 직전에 등을 두드린 피험자들은 파트너와 돈을 나눌 가능성이 더 높았다.

접촉은 심지어 건강과도 관련이 있다. 부모나 유아와 마찬가지로 성인 간의 접촉도 옥시토신을 분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를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부르며 유대감과 신뢰감을 증가시킨다.

(9면으로 계속)

"Let's Go Together..."

(1면에서 계속)
 그러나 교회는 예년의 절반 수준인 5만 달러 예산을 잡고 1교회 100달러 후원운동으로 200교회를 예상하며 경비를 제외한 현금/후원금은 장학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원장 김희복 목사는 "위기가 기회이며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을 새기고,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라며 "오늘 임신행위위원회 [10면 기사 참조]에서 대화개최가 통과됐으니 본격적으로 준비할 것"이라

고 말했다. 대회는 9월 18일(금)부터 20일(주일)까지 열리며 18일은 황성주 목사가, 19일과 20일은 마이클 조 선교사(IM선교회 대표)가 인도한다.

어린이대회를 열리지 않으며, 청소년대회는 성인대회 1주일 뒤인 9월 25일과 26일 프라미스교회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으로 진행된다.

한편 대회를 위한 준비기도회는 8월 13일(목), 8월 27일(목), 9월 10일(목)로 예정돼 있다.

(유원정 기자)



시론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은희곤 목사 (뉴욕 참사랑교회)

19세기 후반의 프랑스의 소설가 모파상은 '여자의 일생', '벨레미', '죽음처럼 강하다'와 같은 인생의 참된 가치를 일깨우는 소설들로 명성을 얻은 작가입니다. 그는 타고난 재능으로 쓰는 작품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커다란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습니다. 그의 삶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지중해에 요트가 있었고, 노르망디에 저택과 파리에 호화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도 많은 돈이 예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1892년 1월 1일

아침,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지만 정신병자가 된 그는 1년 동안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다가 43세를 일기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그가 말년에 반복해서 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따은 글, 바리바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얼마나 더 갖고 있느냐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한다 해도,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 그리고 만족과 행복이 없다면 결국 나는 모파상과 같이 모든 것을 가졌으나 아무 것도 갖지 못한 공허한 삶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삶도 있습니다.

영국 대부호 캐리에게는 '조지'와 '윌리엄'이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수재였으며 장래가 크게 촉망되어 가문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예상한 대로 형 '조지'는 돈도 많이 벌었고 국회의원까지 되어 부자로서 정치가로도 명성을 크게 떨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은 출세할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을 모두 마다하고 난데없이 인도의 선교사로 지망하였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친구들은 달려 들어온 행운과 명예를 저버린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비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대영 백과사전에 두 사람을 나란히 소개하고 있는데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는 무려 1페이지 반을 할애하여 그의 생애와 업적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으나, 조지에 대해서는 단 한줄도 윌리엄 캐리의 형이라고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자신의 명예를 얻기 위해 선교사로 간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부와 명성이 예약되어 있는 길보다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을 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그 길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한순간 부와 명성을 떨치며 사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만, 남들이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찬란히 빛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만나기 그리 흔치 않습니다. 바울은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샘솟듯 넘쳐 오르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은 무명인 자, 죽은 자, 근심하는 자,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항상 기쁘고 부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와 감격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장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양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후6:9-10). 바울의 '부요의식'입니다. 바로 이 은혜와 감격 때문에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빛날 수 있었고,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을 다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고, 마리아는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옥함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뉴욕은 벌써부터 폭염경보가 내려진 무더운 8월입니다. 누군가 8월은 '복탁의 달'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툭 건드려도 딱하니 튀는 예민한 시기라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더 힘들고 민감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아무 것도 없는 모파상의 공허한 삶이 아니라,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바울의 삶, 일상과 평상 속에 주시는 고난의 유익과 은혜와 감격으로 주 안에서 부요의식을 갖고 감사와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323) 665-0009 (대표) (213) 674-7982
 ·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 (718) 886-4400 (대표)
 · Fax (718) 886-0074 (대표)
 · E-mail: nyk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 (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18, July 4, and Nov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교육학 박사 Ed.D/목회학박사 D.Min/교육목회학박사 D.Ed.Min
 목회학석사 M.Div/성경적상담학 석사 MABC/기독교교육학 석사 MACE/신학연구석사 MTS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600명 이상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1-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새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배이사이드장로교회)

경계해야 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요새 한국은 박원순 서울 시장의 일로 시끌벅적 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는 서울시장을 3선 한 사람이고 한국 여성인권에 앞장선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최초로 성추행이라는 법을 만들게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가 바로 자신이 정한 성추행법에 연루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드

러나게 되었습니다. 아직 사건의 전모를 알 수 없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보면 죄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의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서로 대립이 되어 의견충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그런 죄가 있다고 해도 그가 삶에서 이런 공적을 인정해야 한

다는 의견과 다른 한쪽에서는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을 서울 시가 기념적으로 장례를 치르고 조문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부딪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시점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어도 그 내면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음으로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도바울은 거듭난 자신 안에에도 죄성이 있음을 로마서 7:18-25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는 이러한 사도바울의 고백을 대하며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되고 언제나 경계 중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자신을 자제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귀한 일을 하고 난 후에도 내 안에 언제나 죄성이 남아 있어 죄로 향하게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큰일을 한 후

가 위험한 것은 무엇인가 큰일을 한 자신이 저지르는 죄는 아주 작은 것으로 보이고 자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큰일을 한 사람인데 그것에 비하면 이런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에 다윗도 빠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여러 나라를 정복하여 이스라엘을 확장시켜 자신을 만족하게 생각하는 때에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왕궁 옥상에서 자신이 이런 나라를 둘러볼 때 신하의 아내가 눈에 들어왔고 직이 낮은 신하의 아내 하나를 빼앗는 것은 너무도 작은 일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다윗은 평생에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수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은 그의 죄의 대가를 참 귀한 일을 하고 난 후에도 내 안에 언제나 죄성이 남아 있어 죄로 향하게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큰일을 한 후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에 의하여 나라를 잃어버리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사탄이 우리 믿는 자를 어떻게 죄에 빠뜨리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큰일이나 선한 일을 하였을 때 스스로 교만케 하여 죄를 작게 보게 만들고 그것을 행하게 함으로 멸망시키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일을 이루거나 좋은 일을 하였다는 생각이 들 때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할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한순간도 자신을 높이려는 상황에 이를 때에 일어나는 죄를 경계하며 기도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평탄하고 행통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김홍석 목사

(뉴욕늘기뵤교회)



32년간 크리스체니티투데이의 대표로 지낸 해럴드 마이클라는 분이 쓴 '격려'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문에서 저자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혼란과 문화적 충격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는 동감할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며 많은 사람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든지 아니면 평범한 일상이지만 주변의 요구가 끊이지 않는 복잡한 생활에서든지 우리에게 용기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바이러스로 모든 분야의 비상시국을 지내는 우리 모두에게 격려와 용기는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가운데 항상 어느 환경에서나 어느 시대에서든지 하나님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데 주저 없이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위로와 격려하는 주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드러내시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즉 위로자와 격려자로 살아가라 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가장 그리워지는 것은 아무래도 공동체의 생활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일으키시는 공동체의 변화된 모습이야말로 대단히 그리워지는 우리 교회들의 공동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성경본문은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답게 이뤄지는 공동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한 사람 바나바를 소개하시며 우리의 공동체를 초대교회의 성령공동체와 같은 공동체로 세워나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초대교회와 많은 차이는 있었지만 오늘도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복음이 살아있는 공동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우리의 롤 모델로 격려자와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대의 바나바와 같은 격려자와 위로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

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격려자와 위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1.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단히 믿음이 좋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 받고 그들이 공동체생활을 이뤄가는데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으니까 나누게 됩니다. 남의 것 빼앗아 나누면 공산주의입니다. 남의 것 건져서 나누면 사회주의라는 말 듣게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남의 것 가지고 모아서 나누는 물론 안하는 것보다는 나눌지 모르지만 성경적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자기 것을 나누는

그런데 35절과 36절 사이에 중요한 접속어 하나가 들어가야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하는데 유독, 그 무리들 가

로님 한분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목사님만 생각하면 어떡하십니까? 우리 장로들도 생각해 주셔야지요. 우리 장로들은 목사님이 집을 소유하시기 전에는 아무도 집을 소유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집을 소유하지 않으셔서 우리 장로들은 한 사람도 집을 사지 못합니다. 제발 우리도 집을 살 수 있도록 교회서 사 드리는 집 받으세요' 하며 사 드렸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훌륭하시지만 장로님들도 훌륭한 분들이라 여겨집니다. 이 시대에 본이 되는 분들이라 여겨집니다.

2.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35절, '구부로부터 난 레위족 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이라고 합니다. 권위자란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란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원어로는 휘오스

거의 60세를 바라보시는 분이 손수 성도들의 이사를 도와드리던 장로님. 물론 이사뿐만 아니라 항상 섬기는 데는 앞장 서셨던 봉사자 많이 하시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장로님 말씀 한 마디면 모두 순종할 정도였으니까요. 그게 그 장로님의 권위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권위는 섬김과 희생 헌신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임을 두고두고 깨닫게 되었던 기억입니다. 바나바가 그런 섬김의 아들 위로의 아들 권위자였다고 오늘 본문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한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섬김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바나바와 같이 섬김의 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권위를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3.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27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제가 미국 와서 처음 직장생활할 때 동료들에게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이 끝나면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회식을 합니다. 회식자리에는 반드시 술이 따라오고 고된 끝에 회식자리에 안 가기로 결심하고 나니 몸은 편한데 술을 직원들이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사장되시는 장로님이 부르셔서 식사를 하라고 하시며 그 자리에서 저에게 '김선생 많이 힘드시. 다 알아. 그런데 힘드시지만 잘하는 거야' 하시며 위로 해주시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 말도 잘 못하고 있는데 '이제 때가 된 것 같네' 그러시면서 언젠가 말씀 드렸던 사역을 위해서 저를 신학교 가는데 많은 힘이 돼주셨습니다. 알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왕따는 원래 '왕은 따로 노는 것'이라 하지만 왕따를 당해본 사람만이 그 고통을 압니다. 사울은 그 스스로가 만들었던 불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바나바는 사울을 믿어주었습니다. 믿어주고 사역자로 세워주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최초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데 바나바의 더 놀라운 것은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선교사로 파송 받고 선교의 무대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앞세우고 바나바는 뒤로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은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바나바는 동행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사역에 참여하고 바울이 선교팀장으로 올라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믿어주어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잊혀져가는 순간에 데려다 사역자로 세워서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하는 중 선교의 부름 받고 동행하다가 바울을 앞세우고 바나바는 팀원으로 사역에 참여하며 끝까지 세워주는 바나바의 이 삶이 야말로 성령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범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한결같이 섬기며 끝까지 주의 일에 헌신하며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 오늘날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사람 되라 하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행11:24)라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큰 무리가 주께 더해졌다 하셨는데, 여러분들 통하여 많은 무리가 주께 더하는 역사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hongskim1623@yahoo.com

격려자 바나바

사도행전 4장 32-37절

말씀하는데, 우리가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음이 다르고 뜻이 맞지 않아서 얼마나 교회들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 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은혜 받은 모습을 말합니다.

둘째로 그들이 은혜 받고 변화된 것은 32절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두 번째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은혜 받으면 나누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 받고 나누는 것을 보면 요즘 큐티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 것을 많이 봅니다. 기도응답 받았다고 나누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은혜 받고 말씀 나눴다는 것은 없고 기도응답 받은 것 나누는 것이 없이 재물을 나눴다 말씀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생각합니다.

말씀기도는 기본으로 나눴겠지요. 그리고 나니까 물질까지 나누게 되더라 말씀합니다. 요한 웨슬러 목사님은 "나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형제의 회심을 인정하지 않겠다"

운데 바나바만 사람 한 사람의 이름만 거명합니다. 바나바가 자기 이름이 빠지면 그 많은 재물을 드러내는데 시험받을 것 같아서 바나바 이름만 기록했을까요?

그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드러내는데 그 중에 가장 모범이 되는 사람, 그래서 35절과 36절 사이에 그 중에 혹은 그 가운데라는 접속어가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구부로부터 난 바나바 구부로는 대단히 부유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 시대에 구리광산이 있었던 그런데서 모든 자기 소유를 팔았으니 모든 그 공동체에서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바나바와 같은 모범적인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과 전화하는 중에 뉴욕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인데 몇달전 소천하신 분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더라 말씀합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시고도 집이 없이 렌트로 사셨답니다. 집 없는 교인이 많은데 여짜 집을 소유할 수 있겠는가 교회 당회에서 그렇게 사 드린다고 하는데 마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회하시는데 장

파라클레시오스, 휘오스는 아들이란 뜻이고 파라클레시오스는 위로란 말입니다. 많이 듣던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가 성령이니까 성령은 위로자입니다.

그러므로 바나바는 성령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란 말인데 그 이름을 사도들이 붙여주었다고 했습니다. 별명은 한두 번 행동으로 붙여지지 않습니다. 여러 번 반복되는 행동으로 부쳐지는 것이 별명입니다. 위로의 아들이고 성령의 아들이고 격려의 사람 바나바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정착하며 80년대 중반에서 89년까지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직장 사장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35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이민 와서 정착하는데 많이 고생하던 때입니다. 선교회 부장을 하시면서 교회를 많이 섬기신 분이십니다. 그 때만해도 이민생활에 안정된 분들이 많지 않은 때라 고우들이 일년에 수십 번은 이사하는 교우들이 사해 주시느라고 저도 이사 팀원으로 속할 정도로 이사를 많이 도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저희도 일년에 세 번까지 이사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싸고 깨끗하면 무조건 이사하던 때니까요.

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리라." 사울의 회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 믿는 것을 아무도 믿어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저 같아도 사울을 용서할 수 없는 적그리스도로 보았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큰 몫을 한 인물이고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하였던 사울인데, 사도들이 사울을 사귀려 할리가 만무한 일이지요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추천하는 장면이지요 아마 바나바는 사울에게 이렇게 설득하고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지 않았겠나 추측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당신을 믿어주듯이 나도 당신 믿으. 그러니가 두려워 말고 나를 따라 오시오." 얼마나 든든한 바나바입니다! 거기다 13년 동안이나 사울은 고향 다소에 처져 있는 것을 데려다 안디옥에서 1년간 사역을 하며 사역자로 세우니다. 철저히 믿어준 것이지요.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기쁜 소식 그러나 방심할 수 없는 사악한 발의안 AB 2188

기쁜 소식!

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Pro-Family 기독교 단체들의 연합과 차세대의 건강을 우려하는 수많은 교회, 성도, 시민들이 빗발치게 올린 항의 편지들과 전화, 의원들 사무실 방문으로 인해 AB2218 발의안이 올해 2020년까지는 완전히 스탑(STOP)되고 내년 2021년으로 미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Tvnex(Traditional(Biblic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다음세대 가치관 정립 & 보호단체)와 함께 AB2218을 막는 운동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단체, 교회를 비롯)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청회 결과

이번 AB2218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7명의 민주당, 2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이메일과 전화들이 어느 날은 완전히 불통이 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메일과 전화를 했다는 보고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매일 전화를 하고 이메일을 9명 상원들에게 두 번씩 보내자 두 번째 보낼 때는 Fail되는 이메일이나 다운됐다는 이메일 회신까지 들어왔는데, 이메일이 안 된다는 교역자님들, 성도님들의 연락을 받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방심할 수 없는 AB2218: 2021년 이 발의안은 다시 꼭 나올 것이기 때문!

창조주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별하여 특별히 지정해 주신(렘1:5) 우리 자녀들의 성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계속 선한싸움에 동참바랍니다. 이 발의안의 통과여부를 결정하게 될 9명의 의원들에게 AB2218을 적극 반대하라는 메시지를 올해 말부터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AB2218에 민주당 7명은 적극 찬성, 공화당 2명이 저희 편에서 반대중입니다.

통과되면 안 될 이유들

- 1. 십대들의 남, 녀 성별을 바꾸게 한다.
- 2. 캘리포니아 주정부, 시민

AB2218은 어린 십대들에게까지 성전환(sex change)을 쉽게 재정 걱정 없이 할 수 있게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2015년에 Minor Consent 라는 새로운 수정법안이 통과되어 십대들은 부모의 허락 없이도 이런 위험한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Sex Change/홀몬 시술들은 어른들에게도 해롭지만 아이들에게는 더 더욱 치명적이라는 의학적 검증 사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전환을 이미 했던 사람들이 후회하고 AB2218을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특별히 성전환 시술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존 합킨스 대학의 정신과 의사가 있

들 세금으로 성전환 수술/홀몬 치료제 재정지지

캘리포니아는 이미 56억 달러의 적자를 가지고 있기에 시민들의 세금은 날로 올라가고 있으며, 아시아시도, 지금 내는 세금도 미국 전역에서 가장 높은 주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캘리포니아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높은 수입(Income)을 자랑하는 주중 하나지만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U.S. Census Bureau와 Economist 경제 연구 분석한 리포트에 의하면 가장 가난한 주로 뽑히지 벌써 수 년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AB2218에 의하면, 정부가 무려 15,000,000달러나 성전환 시술 비로 세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할

정부에게 더 받게 되는 상황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아래는 이미 PP가 십대들에게 제한한다고 공식적으로 그들의 웹페이지에 적은 것 중 몇 개입니다.

△여성홀몬제(남자아이들에게)△남성홀몬제(여자아이들에게 testosterone 포함)△Family PACT Program(캘리포니아만 해당). Family PACT is a California state-funded program that provides some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based on a person's sex as signed at birth. Eligibility for Family PACT is based on yourself-reported income and family size, and your ability to become pregnant or cause a pregnancy. We ask that you fill out the Family PACT paper work using your sex assigned at birth. California Planned Parenthood(https://www.plannedparenthood.org/planned-parenthood-marmon/patient-resources/gender-affirming-care



던 Dr. Paul McHugh는 지금도 자신의 생각을 변하지 않았다고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태어난 성별을 바꾸고자 하는 것은 몸에 대한 것이 아닌 정신적인 이슈이고 몸을 다른 성별로 바꾸는 것보다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할 이슈라는 것입니다.

2018년 U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면 성전환했던 사람들 중 설문조사에 응한 91%의 성전환자들이 "정신치료-Mental health"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적었으며 88%의 응답자들은 다시 태어났을 때의 성별(detransition)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의사들이 알려주어 한다고 응했다고 합니다.

4. 하나님이지 말라고 하는 것을 "선하다" "괜찮다"고 아이들에게 잘못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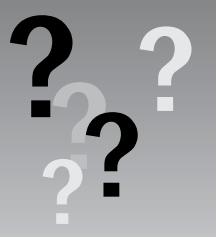
이것이 가장 크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해야 할 이유입니다(사5:20). 겨우 2명의 민주당 소속인 Miguel Santiago(LA 코리야타운을 포함한 다운타운 및 East LA 담당, 53다스트릭 담당)와 Scott Wiener(샌프란시스코와 산마테오카운티 담당) 하원의원에 의해 제출된 이후 100% 민주당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AB2218이 2021년에 다시 올라와도 완전히 무시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3. 정부의 재정보조는 Planned Parenthood 같은 낙태대기업으로

성전환/홀몬으로 성별 바꾸기 등의 시술들은 이미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Planned Parenthood(PP) 같은 낙태 대기업에게 어느 정도 지원보조를 지금도 해주고 있습니다. 오바마 때는 미연방차원에서 지원보조를 받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런 자금을 정지시켜서 연방정부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B2218이 통과되면 PP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주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한국어 유학 온 대학생으로 이곳서 정치학을 공부해 어려운 우리 조국의 정치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쌓아야 할 것 같은데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텍사스에서 Hong

A: 좋은 질문입니다.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되는 길은 마음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애국심과 역사를 보는 통찰력과 지혜와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세계적인 명지휘자인 토스카니니는 원래 첼로 연주자요 작곡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심한 근시여서 앞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연주가와 작곡가로서 치명적인 불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관현악단의 일원으로 연주할 때마다 앞에 놓인 악보를 볼 수 없어서 미리 모든 곡을 다 외워 연주회에 나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연주 직전에 지휘자가 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단원 중에 모두 곡을 외우고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토스카니니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임시 지휘자로 단 위에 서게 된 것인데 그때 나이가 19세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로 그의 지휘 반응이 좋아 그는 지휘자 토스카니니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보통 세렌디피티(serendipity)라고 말합니다. 18세기 영국의 작가 호레이스 윌폴이 처음 사용한 말인데 "예기치 않은 행운"이라는 뜻인데 이 세렌디피티의 행운을 붙잡아 축복의 열매를 맺는 능력은 평소 애 담아놓은 실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유능한 정치 지도자가 되려면 평소 애 인성과 통찰력 그리고 대중을 끌고 가는 지도력과 스피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평소에 인성과 통찰력, 지도력, 스피치 능력 키워야

1910년 8월 22일, 한국은 한일합병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애국자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는데 안중근, 김좌진, 홍범도, 박용만, 이동휘, 백범 김구 같은 사람은 무장투쟁을 통해 독립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무력으로 일제를 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생각하여 약소민족인 우리가 국제 정세의 변화를 노려 강대국을 설득하여 독립의 공간을 마련하자 외교를 통한 독립의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사의 도움으로 30세에 미국으로 건너가 조지워싱턴 대학교에 입학하고 하버드 대학원을 거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국제정치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정치 고위층들을 만나 교제하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돕도록 설득했습니다. 결국 1945년에 독립하는데 미국의 도움으로 이승만은 남한의 선거를 통해 1948년에 한국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6.25전쟁 후에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으로 미군을 계속 주둔케 하여 한반도에 붙잡아 놓았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중국, 소련, 북한에 둘러싸여 한국이 공산화 되지 않게 할 목적인 이승만의 혜안(foresight)이었습니다. 미군과 한미동맹 때문에 북한과 중국은 한국을 그렇게 공산화 하려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현재 조국은 매우 어렵습니다. 능력 있고 균형 잡힌 정치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제2의 이승만이 필요합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 교회안내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www.youngnak.com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학교: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예배: 오전 9:00 토요한국학교: 오전 9:00 Tel: (562)691-0691, Fax: (562)691-0696, www.nachim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영인예배: 오후 1:20 영인권(장소:KDC, 청빙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인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머무는교회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213)909-2820 www.staychurch.org 690 Wilshire Pl, Los Angeles, CA 90005 (수일예배 장소) Office: 106 S Hoar St, Los Angeles, CA 90004 (수요일예배 장소)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주: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 오후 7:30 Tel: (213)381-2202, www.mjc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714)446-6200, www.gracemc.org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90717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인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일요일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가족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선교회(전) 협동목사 상담사: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30분) 사역장: 1. 허심사역자 사역: 1. 목회상담 2. 교회 상담 3. 가정사역 4. 상담사역 4. 네트워킹 사역 http://www.elpisfamily.org/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사제기도회: 365일 24시간 온오프 Tel: (714)446-6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움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행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www.gcjc.org 1801 S. Grand Ave., #A, L.A., CA 90015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stonetv.com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분당) 토 세 예 배 : 오전 9:45(101동)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분당) 수 요 예 배 : 오후 8:00(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분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c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핼(PIM)선교회, 교회 담임목사: 이훈우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한어예배: 오전 11:00 교육부: 오전 11:00 Tel: 213 924-3340, pimission1004@gmail.com 2533 Honolulu Ave # 4 Montrose, CA 91020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택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수요일예배: 아침 7:00(일-토) Tel: (213)500-2948, doc.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의 살라자르(SALARJARESE)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4 번째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이며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나라다. 민족학적으로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인 300개의 별개 인구 집단이 있는 가장 다양한 인구를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하며, 3000개 이상의 많은 섬들로 구성된 나라다. 이 섬들은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주요한 연결고리다.

살라자르인은 최초로 솔라웨시 반도 동남쪽에 위치한 살라자 섬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이웃들인 부기네스인과 상당히 비슷한 문화와 생활습관이 있다고 보고된다. 사실 많은 학자들은 살라자르인과 부기네스인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러나 셀라야라고 부르는 살라자르 언어는 역시 가까운 이웃인 마카사르인의 언어와 더 비슷하다. 과거에는 살라자르의 그들의 노예매매나 해적행위로 유명했으나 오늘날 그들은 대부분은 농부거나 어부다.

삶의 모습

내륙의 살라자르인은 최초의 농부들이다. 옥수수나 그들의 주요 농작물이고 곡물과 쌀은 두 번째 농작물이다. 코코넛과 레몬은 다른 필요한 물품들과 교환되는 현금 농작물이다. 어업은 해안에 사는 사람들의 주요한 직업이며 해산, 바다거북, 조개들은 그들의 수확의 부분을 차지한다.

극소수의 살라자르 마을이 있는데, 집들은 광범위한 농장 지역 주위로 분산되었다. 대부분 흩은 지붕이 있는 널빤지 벽으로 돼있고 집마다, 부엌과 현관 그리고 침실들이 있으며 대개 대나무 위에 집을 짓는다. 보통 가족은 중요한 가족으로 구성되었다. 집이 없는 경우에는 흔히 가까운 친척들과 함께 살게 된다.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 손위자매, 다른 친척들 또는 가족구성원에 의해서 양육된다.

살라자르인은 지역별로 나뉘어 있는데, 상당한 지역을 여자들이 지배하고 있다. "레갈리아"(신성한 상징들)는 각 지역을 대표한다. 지배자, 귀족, 평민, 노예의 후예를 포함하는 많은 민감한 사회적 계급들이 분명히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자계급의 분류는 일상생활에서 성의 구별 때문에 엄격하다 농업에 있어 남자는 쟁기질과 농장생산물 운반하는 일 등 힘든 일을 한다. 전통적으로 여자들은 전통적인 가족의 의무나 대부분의 추수를 돕는다.

시골 지역에서 결혼은 여전히 폐쇄적으로 부모들이나 가까운 친척들에 의해서 성립된다. 전통적으로 신앙의 사회적

인 지위가 신부의 지위와 같거나 더 높아야한다. 두 번째 사촌들 간의 결혼은 서민들 사이에서 선호되고 있다. 반면 귀족들만이 첫 사촌간의 결혼을 허락한다. 이것은 귀족계급과 부를 가까운 가족 안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다. 신부가격은 지출금액으로 나뉘는데 그것은 예식잔치비용과 신부가 받은 신부의 가족에게 들어가는 비용이다.

마을 간의 혈족결혼은 규정이 있으며 이것은 복잡하고 폭넓은 혈족관계 조직을 초래할 수 있다. 살라자르민들 사이의 사회적 계급은 선조들에 의해서 정착된다.

신앙

이슬람은 17세기 이래로, 살라자르민 사이의 지배적인 종교로 자리잡아왔다. 오늘날 실질적으로는 모든 살라자르민은 수니 이슬람교도들이다. 그러나 정령숭배적인 믿음이 여전히 널리 퍼져있다. 자연 모든 것에는 혼이 있다고 믿는 믿음은 그들의 일상생활과 종교적 실행에 강하게 영향을 끼친다.

필요로 하는 것들

인도네시아의 111,000 살라자르민들 중에서 오직 3%만이 기독교인이다. 현재 이 사람들과 일하고 있는 오직 한 선교단체만 있을 뿐이다. 그 언어로 된 기독교 방송과 서적들이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美청문회 선 IT공룡들 진땀...

미국 정보기술(IT) '빅 4' 기업인 아마존·애플·구글·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들이 29일(현지 시간) 사상 최초로 한꺼번에 미 의회 청문회에 소환됐다. 팬데믹 시대에 비대면 활동이 권장되면서 이들 IT 공룡들의 시장 독점 현상이 한층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 탓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오후 미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 소위 화상 청문회에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애플의 팀 쿡,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CEO 등 4인이 전원 출석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빅 4 기업들의 시장 독점을 비판했다. 청문회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세계 검색시장의 92%를 차지하고, 아마존은 전체 온라인 시장 매출의 7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앱 개발자들에게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페이스북의 내부 이메일에서는 과거 인스타그램을 '잠재적이고 파괴적인 경쟁자'로 묘사하며 인수했다는 증거가 제시됐다.

민주당 소속 데이비드 시실린 반독점소위 위원장은 "이미 거인이었던 IT 빅 4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커졌다"며 "간단히 말해 이들은 온라인 경제의 황제들이다. 너무 많은 힘을 가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이 중소·신생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해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빅 4 CEO들은 "독점이 아닌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며 해명을 진땀 흘렸다. 쿡 애플 CEO는 "우리는 어떤 시장이나 어떤 제품 범주에서도 지배적 점유율을 갖고 있지 않다"며 삼성전자, LG전자 등을 거론했다. 이들과 스마트폰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항변이었다.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애플 메신저인 아이메시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중국의 틱톡, 구글의 유튜브 등과 경쟁 중이라고 말했다. 베이조스 아마존 CEO도 아마존이 월마트와 코스트코, 타깃 등과 온라인 소매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차이 구글 CEO도 "트위터, 인스타그램과의 경쟁으로 온라인 광고 비용이 지난 10년 간 40%나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애국심에 호소하는 전략을 펴기도 했다.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은 자랑스러운 미국 기업"이라고 했고, 피차이는 "구글의 기술로 20년 전에 없었던 사업이 미국에서 가능해졌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베이조스는 청문회 서면 증언에서 17세에 자신을 임신한 어머니와 쿠바 출신 양아버지 등 어려웠던 유년시절을 거론했다. 자신이 빈털터리에서 세계 최고 부호가 된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적 인물임을 강조한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빅 4는 시장 독점 지적을 '아메리칸 드림'으로 막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CEO들의 적극적 해명에도 불구하고 빅 4 기업들이 위기에 빠져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미 법무부는 이들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을 물거나 여러 기업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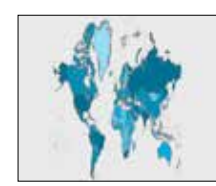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존 등에 대해 오랫동안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해온 점도 약재다.

Internet News

트럼프는 이날 트위터에 "의회가 거대기업에 관한 공정함을 이번에도 가져오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행정명령으로 그것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기자들에게도 "거대 기술기업들이 아주 나쁘게 행동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전 세계 코로나 환자 1800만명 돌파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일 18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30일 1700만명을 넘어선 이후 단 사흘 만에 100만 명의 환자가 더 나온 것이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802만6297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도 68만 8974명에 달해 70만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 확진자 증가 추이는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이 WHO에 최초 보고됐던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누적 확진자 수가 500만명에 도달할 때(5월 20일)까지는 약 5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1000만명 도달 시점은 6월 28일로 39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1500만명까지는 이보다 더 적은 시간이 걸려, 지난달 22일 단 24일 만에 500만명의 환자가 늘어났다. 이날 월드오미터 집계대로라면 이후 300만명이 추가로 감염되는 데는 고작 12일이 걸렸다.

코로나19 확산의 최대 진앙지는 여전히 미국이다. 미국에서는 1일 하루에만 1190명이 코로나19 관련 질환으로 목숨을 잃었다. 벌써 6일째 일일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누적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는 각각 15만7898명, 476만4318명으로 세계 최대다.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등 재확산 중심지인 미국 남부 지역에 2차 봉쇄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NHK방송에 따르면 1일 일본 내 신규 환자 수는 1536명을 기록했다. 나흘째 1000명대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일본 정부가 코로나19에 승리한 것처럼 행동하다가 '팬데믹(대유행)' 상황을 다시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악화에도 중앙 정부는 국내여행 동력 정책 등 경제 활성화에만 매진할 뿐 방역 정책에는 사실상 손을 떼고 있다. 이에 오키나와현과 기후현 같은 일부 지자체는 독자적으로 긴급사태를 선포하는 등 정부를 대신해 코로나19 2차 확산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 내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인 도쿄도와 오사카부도 독자적인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호주 빅토리아주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주도 멜버른의 대중교통망을 5일부터 향후 6주간 거의 완전히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빅토리아주의 코로나19 신규 환자와 사망자가 전일부터 이를 동안 각각 671명, 7명 나온 데 따른 조치다. 대니얼 앤드루스 주 총리는 멜버른과 그 주변 지역들에는 "재난 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10월 코로나 백신 공급될까...

코로나19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 10월이면 백신과 치료제가 공급될 것이라 예상이 나왔다. 다만 백신은 1회 접종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 의견이 지배적이다.

파스칼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 최고경영자(CEO)는 7월 30일 코로나19 백신은 바이러스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백신을 매년 접종해야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소리오 CEO는 이날 미 경제전문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백신을 개발 중인) 대부분의 기업들은 초기 백신에서 2번의 주사를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중증증상 호흡기증후군(SARS) 1과 함께 사용할 경우 면역력이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진실은 우리가(코로나 19에 대해) 모른다는 것이다. 이 바이러스는 매우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 옥스포드대 연구팀과 함께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3상 임상시험에 돌입했다. 소리오 CEO는 "효과 입증되면 이르면 오는 10월이나 11월 백신 공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공급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가 참여하는 유럽포괄적백신동맹과 최대 4억 개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미국 및 영국에 4억 개, 중·저소득 국가에 10억 개 등 총 20억 개 분량의 백신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유

러드립이다. 30분밖에 걸리지 않는 일이에요' 지난달 15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빌 게이츠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 억만장자 래퍼 카니에 웨스트와 그의 부인 킴 타다 시안 등의 트위터 계정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뉴욕타임즈 등은 트위터 계정을 해킹한 사람은 17살에 불과한 미국 소년 그레이엄 아이번 클라크라고 31일 보도했다. 이 소년은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에 거주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었다. 플로리다 주 올랜도 출신의 니마 퍼젤리와 영국 메이슨 세퍼드도 같은 혐의로 검거됐다.

이들의 수법은 유명인들의 트위터 계정을 해킹해 비트코인 계좌로 유동한 뒤 돈을 가로채는 방식이었다. 유명인의 트위터에서 해당 글을 보고 비트코인을 보낸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만 10만 달러에 달한다.

이들의 해킹에 계정이 뚫렸다고 밝힌 유명인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 빌 게이츠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 억만장자 래퍼 카니에 웨스트와 웨스트의 부인 킴 카다시안 등이다.

이들이 유명인들의 트위터 계정에 어떻게 접근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트위터 내부망 관리 권한을 가진 직원을 통해 '스피어 피싱' 방식으로 정보를 빼낸 것으로 전해졌다. 보통 악성 프로그램 코드를 심어놓은 페이지 링크를 통해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정보를 빼낼 수 있도록 하는 수법이다.

이들은 스피어 피싱을 전화로 통해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트위터 측은 어떤 방식으로 해커들에게 정보가 넘어갔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트위터에 따르면 전화 스피어피싱으로 확보한 접근 권한을 사용해 해커들이 해킹한 트위터 계정만 130개에 달한다. 또 이 중 4개 계정을 이용해 비트코인 사기 내용을 적은 메시지를 띄웠다.

일한 약인 렘데시비르의 공급도 오는 10월이면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렘데시비르의 제조사인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사이언스의 조애나 머시어 최고홍보책임자(CCO)는 이날 2분기 실적 발표 후 투자자들과의 컨퍼런스콜에서 이같이 밝혔다.

머시어 CCO는 "10월초면 렘데시비르의 세계적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올 연말까지 200만명 이상 치료분(5일 과정)을, 내년말까지는 수백만명 치료분을 더 생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길리어드는 이달부터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위해 렘데시비르를 판매하기 시작했으나 복잡한 공정과 코로나19 봉쇄에 따른 공급망 붕괴로 세계적 수요를 맞추지 못했다. 9월 말까지는 현재 비축량 대부분이 미국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전날 길리어드와 6300만 유로(약 883억원) 규모의 렘데시비르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 약 3만명을 치료할 수 있는 분량이다. EU 집행위는 "다음달 초부터 EU 회원국과 영국에서 렘데시비르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오는 10월부터 추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물량을 확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길리어드는 미국에선 환자당 3120달러에, 유럽과 다른 개발도상국엔 2340달러에 렘데시비르를 판매하고 있다.

스웨덴 실패 집단면역, 인도 빈민가에서 성공

스웨덴에서 실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면역이 인도 최대도시 뭄바이의 빈민가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29일 뭄바이에 있는 타타기 초연연구소와 시 당국이 지난달 다히사르, 첼부르, 마통가 등 3개 지역의 빈민가 주민 6936명을 대상으로 혈청 조사를 벌인 결과 약 57%가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집단면역이 형성되려면 인구의 약 60%가 항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조건을 갖추면 일부가 바이러스에 노출되더라도 감염 확산이 어렵다. 집단면역은 백신 예방 접종을 통해 형성된다. 뭄바이의 사례가 사실로 확인되면 자연적인 집단면역으로 면역이 형성돼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항체 보유율을 지니게 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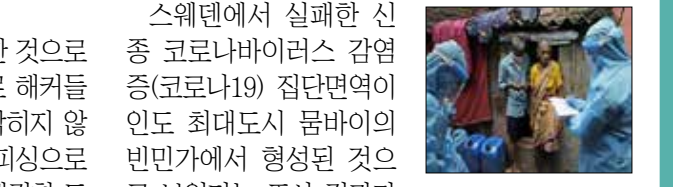
코로나19가 초기 전 세계에 광범위할 당시 일부 국가는 감염을 통한 집단면역에 가까운 정책을 쓰기도 했다. 대표적인 나라가 스웨덴이었다. 하지만 집단면역을 기대했던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지난 5월 확인한 결과 주민의 14%가 항체 보유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단면역이 가능한 60%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였다.

인구 1020만명의 스웨덴에서는 현재까지 5700여명이 숨졌다. 더군다나 사망자 다수는 요양원 등지에서 생활하는 병약한 노인들이었다. 일각에서는 스웨덴이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이들만 희생시켰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미국 뉴욕 주민들의 경우에도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하던 지난 4월 항체 보유율은 21.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연적인 집단면역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현재까지의 결론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뭄바이 빈민가에서 집단면역이 확인되면서 어떤 환경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료 인프라가 탄탄한 스웨덴도 성공하지 못한 집단면역이 인도의 빈민가에서 성공한 이유가 역설적이게도 극단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더럽고 비위생적인 빈민가 환경 탓으로 추측하고 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날 집단면역 전략에 강력한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오바마·빌 게이츠 트위터 계정 해킹범은 17세 소년

'아래 주소로 전송된 비트코인은 두 배가 됩니다. 세계 1000달러를 보내면 제가 2000달러를 바로 돌



제사와 추도예배

기독교신앙을 지닌 신자가 제사를 지낼 수 있을까? 쉽게명에 분명히 기록된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이다. 보수적 성도들은 제사문제에 대한 입장이 단호하다. 기독교신앙과 이미 죽은 조상에게 음식을 바치는 행위는 병행될 수 없다고 믿고 있다. 1890년에 한국으로 파송받아 46년간 복음과 교육 사역에 매진하였던 사무엘 마ffet (Samuel Moffet, 1864-1939) 선교사의 영향 때문이다. 그는 신자들이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범을 제정하여 단호하게 대처하였다.

한국 천주교는 1962년에 제사가 우상숭배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제사란 조상을 추모하려는 좋은 동기로부터 시작된 한국인의 문화적 요소라고 정의하고 새롭게 허용한 것이다. 그 후로 개신교회는 제사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를 더욱 드높였다. 그 당시 성도 중에는 제사문화란 종교의식이 아니라 조상에 대한 후손의 효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믿거나, 거부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신앙의 양심을 거스리며 실천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요즈음 젊은이들 사이에 효심이 사라진지 오래다. 대가족과 핵가족 시대를 넘어 1인세대 시대가 도래한 뒤, 노인을 누가 돌보느냐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다. 내 가족과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희생을 감수하려 해도 부모 부양책임은 지려하지 않는다. 나아가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더욱 꺼리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상을 존중히 여기는 전통적 문화를 다시 살려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후에 언급될 자유주의신학자들로서, 기독교가 지나치게 타종교에 대하여 공격적이며 배타적이라고 주장한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회적 변화에 공헌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상을 존중히 여기는 한국인의 아름다운 전통을 중시시키고 가족 간에 엄청난 갈등을 불러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조상을 존중하는 미풍양속을 거부하는 종교인가? 아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교사들이 한국문화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유일신관 섬겨야 한다는 성경적 가르침을 잘못 적용한 것이 아니다. 선교사들은 죽은 자에게 제물을 바치며 복을 구하는 행위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성경은 부모공경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추도예배가 장려된 것이다. 초기에는 추도예배가 제사와 유사하기에 혼동을 줄 수 있다하여 금지되었지만 점차 각 교단마다 전 교회적으로 이를 권장함으로써 기독교는 부모공경을

중요시 하는 것을 널리 알게 하였다. 추도예배와 제사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추도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제사는 죽은 영혼을 대상으로 한다. 추도예배는 복음이 한국에 토착화 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 제사를 소중히 여기던 한국인의 문화 속에서 기독교 신앙인들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하거나 완벽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모든 문화는 예외 없이 상대적이며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반영되어있다. 단지, 신앙성경은 순수한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독특한 문화에 토착화되었는지의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교회역사는 복음의 확장에 대한 기록이다. 이는 곧 복음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문화 속에 토착되는 과정에 대한 언급이다. 지구상 각 지역의 언

특히 1872년부터 만주에서 활동하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John Ross, 1842-1915)에 의해 한국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미 토착화가 이뤄졌다. 로스는 성경번역이 조선 선교에 큰 효과를 얻을 것으로 확신하고, 구체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두 차례 만주 심양 봉황성의 고려문을 방문하였다. 그는 그곳에서 이응찬, 백홍준, 서상륜 등을 만나게

설립하였다. 이는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에 도착하기 전인 1883년에 일어난 일이다.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대하던 태도에서 다른 토착화의 예를 발견할 수 있다. 성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거룩한 경전이란 생각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대했다. 성경을 대할 때에는 두 손으로 정성껏 받들었다. 또한 성도들은 1주일 이상 지속되던 사경회 참석을 신앙의 필수로 삼았다.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모습은 마치 서당을 연상시켰다. 교인들은 각 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교사의 말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였으며, 그 내용을 깊이 숙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성경암송이 한국교회에 토착되었다.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17)

부제: 교회사가 가르친다!(4)-토착화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토착화 신학

한국기독교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토착화 신학이 출현한 것은 1960대의 일이다. 윤성범, 유동식, 변선환 교수를 중심으로 서구 기독교의 신학적 개념을 한국 전통문화와 종교 속에서 해석하려 한 것이다. 이들은 전개한 토착화 신학은 성경의 진리로부터 매우 벗어났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한국에 단군신화의 환인, 환웅, 환길 이마가 경교를 통해 한국교회의 삼위일체론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육교의 성리학은 그리스도의 초월과 내재를 포괄하는 진리를 계시하는 원리라고 보기도 한다. 또한 6세기에 형성된 풍류도에 이미 기독교적 진리가 실현되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한국인은 정확히 규정할 수 없는 초월적 대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개신교의 하나님과 통하는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토착화 신학은 혼합주의 경향을 드러냈다. 한국의 문화 전통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복음이 지닌 순수성을 희생시킨 것이다. 그들의 관심은 한국적 문화와 기독교 진리의 유사성에 집중되어 있었기에, 이 둘 사이의 존재하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은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 한국교회에서 토착된 복음임을 무시하고, 새롭게 한국전통 문화에 근거한 한국적 기독교를 수립하려는 시도였다.

한국적 신학을 지니려는 노력은 70년대부터 새로운 양상을 갖추게 된다. 서남동과 안병무 교수를 중심으로 민중신학이 등장한다. 이미 60년대부터 서구 교회에서 시작된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들은 한국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된 민중의 고난에 현실을 부각시키고, 이런 상황에 저항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신학적으로 대변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가 고통 받는 민중으로 둔갑되었다. (9면으로 계속)

토착화

선교를 통해 전달된 복음의 씨앗이 어떤 방법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특히 수입된 서양의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전혀 생소한 문화권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까? 선교학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인 토착화(Indigenization)가 답이다. 이는 복음이 문화적 형태로 표현되기에,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복음과의 접촉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가리킨다. 과연 토착화는 어떻게 이뤄지는 것

어와 문화가 매우 다양하다. 수용하는 자들이 친숙한 문화를 통해 불변하는 복음의 진리를 수월하게 표현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인 후 이전의 종교적 확신을 포기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이 처해있는 삶의 상황을 전적을 무시하는 것은 옳은 결정이 아니다.

문화적 상황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이다. 효과 있는 선교사역을 위하여

되었다. 로스는 어학에 뛰어난 재능을 지닌 인물이었지만, 정확한 한국어 표기를 위해 한인들의 도움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놀라운 것은 성경번역에 참여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 개신교 신앙인의 신분으로 로스의 작업에 협조할 수 있었다.

로스는 이미 번역된 한국어로 다시 교정하는 과정을 걸치면서 원문에 충실한 성경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번역을 도왔던 한인들의 문

복음보다 상황을 더 중시한 토착화 신학과 민중 신학은 거부

변하는 문화에 대응하며 성경에 근거한 토착화는 계속 돼야

일까? 또한 한국교회 초기에 이뤄진 토착화는 어떤 성격을 지녔었으며, 1960년대 이후에 시도되었던 토착화 작업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런 긴장감 속에서 현대교회에 요구되는 개혁과 토착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토착화라는 단어 자체는 생소할 수 있어도,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내용과 복음전파의 역사를 이해한다면 이미 토착화에 대한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셈이다.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월의 세계에서 인간이 사는 땅에 도성인신 하셨다. 초문화적 존재가 유대인의 전통문화를 입고 오셨다. 십자가에서 완성된 복음이 그리스-로마라는 특수한 문화를 지닌 세계에 전파되었다. 신앙성경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언어 중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유대문화 또는 헬라문화가 타 문화에 비해 우수

선교지 문화에 대한 이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이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다는 근본적인 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국 교회

초기 복음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친숙한 서양의 문화와 매우 다른 한국의 고유문화를 접해야 했다. 그들은 토착화 이론에 대한 학문적 체계를 갖춘 전문가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앞서 제사제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문화 속에 성경의 진리를 수용시키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토착화를 시도했다. 그럼에도 한 가지 특이하였던 것은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그 땅을 밝기 전부터 성경이 중심된 교회의 모습으로 토착되었다는 것이다.

화적 요소가 잘 반영될 수 있었다. 그 당시는 한글사용에 있어서 띄어쓰기가 실행되지 않았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나님, 예수, 주, 그리스도와 같은 단어 뒤에 한 칸을 비워두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였을까? 이미 복음을 받아들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진 번역자들이, 신적 명사를 표기하면서 한국 전통문화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동양인의 예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이 성경은 초기 한국교회의 신앙적 근간이 되었다. 로스를 도와 성경번역에 참여한 이들은 의주로 돌아와 복음을 전파하였다. 백홍준은 그 과정에서 재산을 잃고 옥고를 치렀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국내 최초로 자발적 개신교 신앙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었다. 서상륜은 동생 서경조와 함께 황해도에서 최초 개신교 교회인 소래교회를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across different regions. Each entry includes the church name, pastor's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리더십 코멘터리 (116)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영적리더십 패러다임의 전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유망분야 키워드는 HOME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인 대란으로 7월말 현재 전 세계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수가 1,630만 명, 사망자 수가 65만 명을 넘었다는 뉴스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인류를 사망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크게 변화시켰다. 앞으로 소비와 생산을 비롯한 모든 사회, 경제활동은 코로나19를 기준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른바 '코로나 뉴노멀'의 도래이다.

뉴노멀(New Normal)이란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과거의 표준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표준이 세상 변화를 주도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코로나로 인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먹고 마

과 집중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뉴노멀 준비해야 한다.

과연 교회에 미래가 있는가?

크고 작은 문제들을 활화산같이 분출해내는 지금의 교회에 과연 미래가 있는가?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목회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다면 교회의 미래는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 엄청난 속도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십은 무엇인가? 지금은 시대를 앞선 새로운 목회패러다임을 만들고 더 나아가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적응성이 필요한 때이다. 이제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영적리더는 뉴노멀시대에 적응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과감히

들에게 안정성을 가진 인물이라는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이미지는 따르는 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과 소통 부재를 야기하고 리더가 잘못된 판단할 경우 이를 제지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과연 이 시대의 목회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인가? 아니면, 성도들의 소원성취를 도와주는 영적 매개자인가? 목회자는 누구나 영적 지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지만 영적 권위가 하락할수록 목회자는 성도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본능적으로 영적 매개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된다.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포기하고 영적 매개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리화하는 목회자는 어디서든 볼 수 있다. 이는 곧 점점 더 영적 권위를 상실해가는 이 시대 목회자들의 슬픈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비전의 재조명

교회는 세상의 빛이며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영적 기관이라는 말은 교회가 사회의 다양한 영역들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교회성장과 교회건축에 몰두하면서 세상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단지 전도와 단편적인 구제와 사회봉사 정도로만 생각해온 경향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말이기도 하다.

영적지도자 역할 포기하고 영적매개자 역할만 하면 영적 권위 상실 패러다임의 전환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비전 다시 회복해야

시며 일하고 공부하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비대면'이 대세이다. 코로나19가 촉발한 뉴노멀의 한 단면이다. 코로나 뉴노멀은 비대면과 탈세계화의 특징을 띠는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사회경제 생태계가 변화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유망 분야 키워드는 'H.O.M.E.'이다. 'H.O.M.E.'는 건강·방역에 대한 인식 제고로 떠오른 '헬스케어(Healthcare)', 인공지능(AI)·빅데이터·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을 토대로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 된 '온라인(Online)', 방역 과정에서 안전성과 효율성이 검증된 '무인화(Manless)',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형성된 '홈코노미(Economy at Home)'를 일컫는다.

뉴노멀을 향한 세계 변화는 많은 소비자들이 대면 접촉에 따른 감염 우려를 줄이고자 비대면 경제로 몰려드는 상황에서 엿볼 수 있다. 전통 대면 서비스는 쇠퇴하고,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IT) 산업과 개인화 서비스가 그 자리를 메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표준을 예비하고 선점해야 뉴노멀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위기는 절호의 기회이다. 선택

접근하는 지혜와 용기를 갖고 시대를 앞선 분명한 방향 제시와 첨단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통해 권위를 회복시켜 나가야 한다.

영적리더십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paradigm)이란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의 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를 말한다. 우리가 그동안 신봉해왔던 전통적인 권위주의 리더십은 리더가 따르는 자들에게 강력한 권위를 행사한다는 특징이 있다. 리더의 강력한 권위 확보의 중요한 수단은 따르는 자들에게 리더 자신의 사적 감정과 사생활 노출을 최소화하고 가공되고 편집되고 계획된 공격 영역에서만 자신을 노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리더 자신에 대한 신비감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따르는 자들은 리더가 자신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고, 이런 인식은 또한 따르는 자들이 리더의 권위에 무조건적 복종을 하게 만드는 기제로 작용한다.

이런 강력한 리더 이미지는 따르는 자

오늘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사회로부터 불신과 비판을 받게 된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지녀야 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교회의 모습도 상실하게 된 것이고 이웃사랑을 통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관심과 영향력도 상실하고 사람들의 외면을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다시금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가 그것을 위해 살다가 그것을 위해 죽어야 할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코로나19의 창궐로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와 급변하는 사회 모습으로 인해 영적리더들이 우왕좌왕하며 교회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의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과 교회가 그 삶을 세울 만세 반석이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의 어떤 환란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심을 명심하자.

sondongwon@gmail.com

성 품 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무조건 참는 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몇 해 전 중국에서 '성품이노베이션' 가정 성품치유세미나를 진행하던 중에 한 여인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의 엄청난 의처증으로 비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 증거를 고스란히 보여주듯 얼굴에 채 가지지 않은 멍 자국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7년 동안 일편단심으로 쫓아다니던 남편의 모습이 자신을 향한 헌신인줄 알고 결혼을 결심했다며 여인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집착과 편견증 같은 증세였고 지나가는 남자에게 우연히 눈길만 돌려도 그날은 여지없이 온몸에 폭탄 같은 주먹 세례를 받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듣다보니 남편의 의처증 증세가 정도를 넘어 살인미수 행위로까지 여겨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반복됐는데 왜 속수무책으로 맞고만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더욱이 답답한 것은 아빠가 집안에서 엄마를 때리기 시작하면 10대인 자녀들이 문을 닫고 각자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필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맞고만 살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참아야 하지 않나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참으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지 묻자, 그녀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엉엉 울면서 아빠에게 엄마를 때리지 말고 매달리던 아이들이 이제는 냉담하게 문을 닫고 들어가는 것이 걱정스럽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저는 이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이지 무조건 참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무조건 참으면 어떤 불행한 일이 속수무책으로 일어나는지 예고하고, 남편에게 의처증 치료를 받지 않으면 더 이상 살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권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듯 잘못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가두고 사는 모습을 발견할 때 참 당황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확인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반면에 어리지만 인내가 무엇인지 뚜렷하게 알고 정확하게 행동하는 좋은나무성품학교의 7세 어린이가 생각나서 입가에 안심하는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강원도 여행을 떠나 어느 음식점에 들렀는데, 음식점에 들어서자마자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더라고요. 음식을 시켜놓고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웅감하게 성품을 배운 친구가 나가자고 이야기를 했지요. 엄마는 아이에게 "너 인내 배웠잖아. 인내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정확하게 "엄마, 이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이에요. 이 음식점에서 참고 기다리면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라고 되묻더라고요. 결국 이내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 아들에게 감탄하며 그 가게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히10:36)고 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내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코로나로 어수선한 상황 중에서 주님이 나를 향해 약속하신 좋은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주님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약1:4)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길 원하시는, 좋은 아버지의 약속이 오늘 온전히 '인내'해야 할 우리의 소원이 됩니다.

goodtreeusa@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p>뉴욕몽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신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6:00 사택기도회: 오전 9:45</p> <p>Tel. (718) 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p>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45 금요기도회: 오후 8:45 새벽기도회: 오전 5:30-6:0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 토</p> <p>Tel. (718) 265-2584, www.l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p>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16) 883-1977, Fax. (516) 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p>뉴욕새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p> <p>Tel. (917) 733-7387, chungkitaeh@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p>	<p>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 637-1470 45-50 162 St, #2FI, Flushing, NY 11358</p>	<p>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훈 주일1부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 461-2810(Fax: 없음), (917) 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p>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cpcny.org, Tel. (516) 387-8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p>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 3주)</p> <p>Tel. (201) 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p>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 안양모임: 오후 8:30</p> <p>Tel. (718) 961-2171, Fax. (718) 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p>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찬양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45 3부 오후 12:0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45 진교인명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7:30</p> <p>Tel. (718) 229-2858, www.baysidechurch.com/V2/ 45-62 21st St, Bayside, NY 11361</p>	<p>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후 1:50 주일3부 오후 3:15 찬양예배 오후 3:15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 (347) 513-1351, cheongs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p>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 886-4040, www.kapccq.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2>하와이 및 북미 지역</h2>					



목회서신

“우리가 기델 언덕”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나 인간의 연약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워 떨며 얼음판 위를 걷듯 조심조심 살아가는 형국입니다. 심지어 주일성수를 생명처럼 여기던 교인들도 방콕하고 교회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건강도 목숨도 귀하고 교회도 신앙도 귀하지만 인간존재 자체가 너

무나 연약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이상한 두려움의 공포에 붙잡혀 살아가는 오늘 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가 기델 언덕을 생각해 봅니다.

속담에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언덕이 있어야 소도 가려운 곳을 비비고 언덕을 디터 볼 수 있다는 뜻으로, 누구든지 의지할 언덕이 있어야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고 이를

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누구를 믿고 어디에 기대며 살아야 할까요?

다윗은 용감무쌍한 장군이요 왕이요 지혜로운 통치자였지만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해 보는 인간의 존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의 어떠한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

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 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엽는 것 같아오니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 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 나이다”(시39:4-6). 우리는 나 자신을 보아도 나를 내가 기대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목회를 하는 저는 종종 아주 특별한 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충성하고 큰 헌신을 하고 목회자를 잘 협력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한량없이 감사하고 기대를 하며 저분은 내 목회사명 수행 길에 내가 기델 언덕과 같은 분이라고 생각도 하고 또 그분들도 그렇게 장담 하며 충성 고백하는 말씀을 듣 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아무리 충성하고 봉사하고 나에게 풀같은 말씀으로 맹세를 하여도 결국은 끝까지 목사가 기델 언덕은 아니라는 것을 경험 하게 됩니다. 이는 나만의 경험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절박한 역사적 환난의 시련기를 통과하는 우리들은 누구에게 기대며 누구의 도

움을 받아야 할까요? 인생의 굴곡을 다 경험하였던 다윗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의지 하고 기대하고 기델 언덕으로 삼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시 39:7). 여기서 주님께 소망을 있다는 말씀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델 언덕이 되어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델 언덕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비빌 언덕이 없고 기델 언덕이 없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든든한 배 곁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비비고 기델 수 있을 까요? 그것은 너무나 쉽고 간 략하고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일성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문을 열면 하나님은 보호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혜택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사로 맺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에게 기델 수 있고 하나님에게 비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숨죽이고 숨어 있을 때가 아니라 온 역을 이 땅에 내리신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금식하며 작 정하고 기도로 비빌 때입니다. 온역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역을 소멸 하시도록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시련을 돌파하여 나가십시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사회도 참으로 기델 언 덕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 뿐임을 선포하고 증명하여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 복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시39:7).

cyd777@hotmail.com

예수님은 ‘감염과 ...

(3면에서 계속)

연구에 따르면 터치의 진정 효과는 심혈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과 관련이 있고, 포옹은 심박수와 혈압을 낮추어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촉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접촉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professional toucher) 즉 지압사, 물리치료사, 마사지 치료사, 무술 강사 등을 찾고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서 유기적인 원인이 없는 질병에 대한 신체검사를 기다리며 의사의 접촉을 기다린다”고 수잔 K. 파버가 사이콜로지투데이(Psychology Today)에 기고했다.

성경에서 본 혐오의 시각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핵심염오가 도덕적, 사회적, 영적 상황과 연결될 수 있다면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의 행동 중 일부는 이치에 맞는다. 바리새인들은 단순히 고압적인 법학자가 아니라 감염(즉, 도덕적 불순물)을 두려워하는 평범한 인간

이었다. 핵심염오를 비합리적인 감염논리를 통해 특정 행동과 사람들과 연결됐고, 그 후 근접과 접촉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졌다.

전염병을 겪은 이후 사람들은 혐오감을 숨긴 채 온라인 예배에 만족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감염의 ‘주술적 사고’와 혼잡한 성격에 대해서만 아는 것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모방할 수 있는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행동이 필요하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지를 다 알려주신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병들거나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을 환영하신다(마14:34-36, 막3:7-12, 눅4:40). 예수님은 말씀으로 부정한 사람을 치유할 능력이 있으셨고 때로는 치유하기도 하셨지만, 그들을 만지는 것을 더 선호하셨던 것으로 보인다.

예수님께서 나병환자(막1:40-44)를 만지시고, 자신의 입에서 나온 침으로 맹인과 병어리를 치유하시고(막7:31-37, 요9:1-7),

죽은 자에게 손을 뻗어 만지시어 살아나게 하셨다(눅8:40-56). 혈투증을 앓고 있는 여자는 예수님과 접촉함으로써 치유된다(눅8:43-48).

예수님에게 접촉은 중요하며, 그는 손댈 수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자주 접촉하셨다. 어쩌면 손길로 인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인간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일 지도 모른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이전에 이 사람들을 보고 혐오감을 가지고 대했던 공동체를 화해시키신다.

복음서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행동은 로진이 개략적으로 설명한 전염의 4가지 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예수께서는 아주 작은 감염물질이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근접성과 감지불능에 대한 두려움을 깨뜨린다.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차별을 하지 않으셨으며 이 논리를 부인하신다(눅19:1-10). 영속성 이론은 “한 번 감염되면 항상 감염된다”고 주장하지만, 예수는 누구나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몇 번이고 증명했다(눅7:36-50, 요8:1-11).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정성 지배의 논리, 즉 부정한 것이 깨끗한 것을 지배한다는 생각에 맞서서 예수께서는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신다. 질병이나 죄가 다른 사람들을 불결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는 감염을 극복하고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감염과 혐오의 논리를 따르지 않으신다. 예컨대, 예수님은 접촉을 통해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신다. 사람들은 용서받고 치유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그들의 공동체로 돌아간다.

예수님은 본능적 혐오, 회피, 수치심 등의 충동을 따르지 않으시고 따뜻한 환대로 이웃을 사랑 하신다. 그는 부정한 사람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신다. 물론 의식의 부정과 바이러스 전염은 같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 혐오감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의 가장 큰 위험은 혐오감이 단순히 생물학적 영역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사람들에게 남아 타인을 피하고 잘못된 것에

몰두하며 결국 접촉, 근접성, 그리고 교회가 주는 이익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위험할 감수할 가치가 있는가?

물론, 우리는 현명하고 안전하게 대처해야 한다. 당연히 현장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지도자들이 제시한 관행을 따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자유를 가장해 일부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규칙을 과시하려는 요구가 아니다. 즉, 공동의 책임보다 개인의 권리를 더 많이 준다는 알팍한 은폐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문 점이 생긴다.

교회 예배에 돌아가거나 어떤 형태론든 모이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 다시 완전히 참여하기 위해 대처할 수 있을까? 예견된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 접촉에 대한 연구와 성경에서의 예수님의 행동은 그것이 맞다고 말한다. 혐오는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심리적 전략이다. 하지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

교회공동체에서 우리는 언젠가 두려움과 연약함을 극복하고 실천하도록 소명을 받아 평화를 나누고, 손을 잡고, 식사를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삶을 영위할 것이다. 우리가 성찬식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약함, 우리를 향한 뜨거운 환대, 망가진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을 기억한다. 우리는 그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는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다”(히2:15).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동네로 대담하게 이동해 뜨거운 환대를 실천할 수 있다. 그러니 언젠가 서로에게 거룩한 악수나 키스를 하고 포옹을 하고 손을 얹고 기쁨을 부여 인사를 나누기를 기대해보자. 그것은 분명히 가치가 있다!

【편집자주】이 글의 필자인 브래드 스트론(Brad D. Strawn)은 풀러신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심리학자이며 나사렛교회 장로다.

covenantcho@yahoo.com

개혁의 땀방울...

(7면에서 계속)

토착화의 필요성

선교의 목적은 토착화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복음은 예언적 기능을 지니고 있기에, 특정 문화를 향해 진리를 선포하고 충

분한 이유를 지니고 있다.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서양 선교사이 지녔던 서양문화도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서구교회의 모든 것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코 옳지 않다. 그러나 동시에 선교사들의 사역 이후 한국교회가 복음을 수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일어난 토착화가 온전히 성경의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반성이 요구된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타 문화권에서 교회를 세우시는 주체도 하나님이며, 복음의 진리를 밝히시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문화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토착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이뤄져야 한다. 복음보다 상황이

더욱 중시한 토착화 신학과 민중신학을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성경에 근거한 토착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문화는 변화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비드-19으로 인해 급변하는 세상에서 건전한 토착화가 긴박하게 요구된다. 지금까지 예배는 특정장소에 성도들이 함

께 모여 드리는 것이었다. 그 누구도 교회출석이 불가능하게 될지, 인터넷예배가 전통 예배형식을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팬데믹이 그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전통적 예배만 성경적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 같다.

시대가 변하면서 문화도 함께 변한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수용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달게 져야한다. 만일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상황에 대해 예민하지 않다면 그야말로 팔통신앙과 차가운 교조주의로 전락할 것이다.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퇴행성관절염

무릎이나 엉덩이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노인성 질환

인체도 기계와 마찬가지로, 수명이 오래되면 마모되어 고

장을 일으키는 부분을 수리하거나 필요하면 교체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의 질병이 60대 이후에 흔히 나타나는 퇴행성관절염이다.

- 가정주부인 60대 초반의 김 모씨는 1년 전부터 걸을 때 오른쪽 무릎에 통증을 느꼈다. 통증 때문에 매일 30년 동안 아침마다 하던 조깅도 중단했지만 걸을 때 무릎을 찌르는 듯한 통증은 계속되었다. 약 5년 전부터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통증을 조금 느꼈지만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아침 운동을 못할 정도로 무릎이 아프고 요즘은 운동부족으로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몸무게도 3킬로그램 정도 늘었다. 6개월 전부터 주위에서 권유하는 관절에

좋은 약을 약국에서 사서 복용하고 침도 맞아 보았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 달 전에는 유럽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 무릎을 한 탓인지 지금은 오른쪽 무릎이 심하게 아파서 걸음을 걸을 수가 없었다. 김 씨는 과거 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 성인병을 앓지 않았고 현재 복용하는 약도 없었다. 담배나 술도 일절 입에 대지 않는 성실한 크리스천이었고 무릎에 이상이 오기 전까지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했다. 김 씨의 검진상 혈압과 맥박은 정상이었으며 몸무게는 77kg에 키는 162cm로 비만에 속했다. 오른쪽 무릎이 부어있었고 만질 때 열감을 느낄 수 있었다. 엑스선 검사상 관절의 변형이나 이상은 보이지 않았다. 김 씨는 퇴행성관절염으로 진단 받고 운동

요법과 함께 소염제 치료를 시작했다.

퇴행성관절염은 관절 연골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서 생기는 관절염으로 주로 몸무게를 받는 관절인 무릎이나 엉덩이 관절 등에서 염증이 생기고 시간이 흐르면서 관절의 변형에 이르는 아주 흔한 질병이다. 퇴행성관절염의 진행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노화다. 40세 이전에는 퇴행성관절염이 거의 없지만 55세 이후에는 약 80%에서 퇴행성관절염의 미세한 변화가 엑스선에 나타난다. 또 여성이 남성보다 2-3배 이상 퇴행성관절염에 걸릴 위험이 높고 과체중이나 유전도 관절염과 관계가 있다.

퇴행성관절염 치료는 우선 관절에 휴식을 주어서 급성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하다 과체중에 속하는 경우는 적절한 운동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목표는 통증을 줄여서 신체의 활동력을 지속시켜서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계속되는 관절의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다. 운동은 수영이나 물에서 걷는 것과 같이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운동이 좋고 근력운동이나 관절을 퍼줄 수 있는 스트레칭 등도 도움이 된다.

관절염이 진행되면 약물치료를 병행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무릎이나 엉덩이 관절인 경우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관절염이 진행되면 인공관절 교체술을 실시하기도 한다.

▲문의:213-383-9388

교계 게시판

동부개혁장신 2020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동부개혁장로교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가 2020년도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 신학교로 모집학과는 △대학부: 신학과, 선교학과(고졸, 4년) △대학원: 목회학(대졸, 3년), 기독교교육학, 선교학(대졸 2년) △여교역학과(고졸, 3년)이며 서류는 입학원서 1부, 목사추천서 1부,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1부, 신앙고백서 1부, 명함판 사진 2매, 입학전형료 30달러가 필요하다. 원서접수 마감은 9월 4일(금), 입학시험은 5일(토) 오전 11시, 면접 오후 2시. 한편 개강부흥회는 9월 8일(화)부터 10일(목) 저녁 8시에 있다.

▲문의: (718)463-7163

캘리포니아예술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캘리포니아예술대학교(California Arts University, 총장 정세광 박사)가 2020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음악석사(MA)와 음악박사(DMA)이며 전공은 보컬(성악), 작곡, 지휘, 피아노(키보드), 관현악, 기타, 드럼, 베이스, 레코딩(음향), 컴퓨터(미디) 등이다. 본교는 SEVIS I-20, USDE(US교육국), CHEA(US대학평의회), BPPE(가주교육국) 인준된 학교이며 TRACS 정회원 학교이자 연방 IRS 비영리 법인대학교이다. 가을학기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며 매주 월요일 저녁 비대면(오프라인) 강의를 열린다.

▲문의: (213)700-7575, (714)222-1110

살롱장로교회 설립 43주년 감사예배

살롱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가 8월 23일(주일) 설립 43주년 감사예배를 드린다. 한편 살롱장로교회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7월 12일부터 영상예배를 다시 시작했다.

▲문의: (704)529-0900

소망소사이어티 차드 돕기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 이하 소망)는 최근 소망 차드 지부를 통해 차드 정부의 긴급구호 요청을 받고 차드 돕기 기금모금 캠페인을 전개한다. 기간은 8월 15일(금)까지. 쌀 1포대(3인가족 한달치)의 가격은 25달러이며, 2천 가구 6천명을 도울 수 있는 기금을 목표로 한다. 5836 Corporate Ave. Suit 110, Cypress, CA 90630. paypal 계정이 있는 경우는 somang@somangsociety.org로 보낼 수 있다.

▲문의: (562)977-4580, somang@somangsociety.org

할렐루야대회 개최 확정, 회계보고

뉴욕교협 제 46회기 2차 임실행위원회

뉴욕한인교회협의회 제 46회기 2차 임실행위원회가 지난 7월 30일 줌(zoom)으로 열렸다.

회장 양민석 목사는 “팬데믹 가운데서 임원들이 많이 고심하고 기도하며 몇 개월 동안 왔는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섬기려고 지금까지 왔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회원들의 협조로 그동안 교회를 통해 75개 교회가 사랑의 나눔을 가졌다”며 인사했다.

1부 예배는 할렐루야대회 준비위원장 김희복 목사 인도로 기도 박마이클 목사(대의협력분과 총괄), 성경봉독 손성대 장로, 설교 김영식 목사, 확신 기도(하정민 목사/뉴욕교계와 청소년들을 위해, 정대영 목사/뉴욕복음화대회를 위해), 축도 문석호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영식 목사(증경회장)는 “사람을 이루라”(요일4:18-21)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이번 교협이 잘 감당하고 있어 감사하다”며 “회장이 크레딧이 많아 교협산하 67교회를 돕는 위대한 일을 감당했다”고 칭찬했다. 김 목사는 “목표를 세우면 계획을 하고 세부적인 실천을 잘해야 한다. 한국의 제지지침



뉴욕교협 2차 임실행위원회가 줌으로 진행됐다.

서를 보면 제지침은 하지 말아야 할 일 5가지와 해야 할 일 5가지에 대해 나와 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스거짓말 하지 말라 △함담하지 말라 △형제 이간질하지 말라 △자기 자랑 하지 말라 △불평원망하지 말라이며, 해야 할 일은 △예와 아니오 분명히 하라 △침된 것을 말하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형제를 위로하는 말을 하라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라는 것이다. 말이 중요하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실천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이 복된 열매 맺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2부 회의는 양민석 회장 사회로 김영철 목사 개회기도 후 문정웅 서기가 회원점명도 후 회의록 낭독, 이창종 총무의 사업보고에 이어 할렐루야대회준비위원장 김희복 목사가

대회준비에 대해 설명했다.

김희복 목사는 “팬데믹 가운데서도 회장님이 할렐루야대회를 하기로 결단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일정과 강사를 소개했다. 김 목사는 “이 대회의 2가지 의미는 1)현장집회 300명 목표로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많이 참여하도록 하며 2)재정적 후원이 별로 없는 가운데 강사 2명이라 헌금이 중요하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할렐루야청소년대회에 대해 김준현 목사가 발표했다. 대회는 9월 26일(금)과 27일(토)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

주최장에서 열린다. 강사는 미정이다.

감사보고는 김기호 목사가, 회계보고는 이광모 장로가 6월 11일까지 회계 상황을 보고했다.

할렐루야대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9월 18일(금) 강사 황성주 목사 △19일(토) 세미나 강사 황성주 목사 △19일(토), 20일(주일) 강사 마이클 조 선교사.

첫째 날과 토요일 세미나 강사인 황성주 목사는 의사로 교수로 경영자로 저술가로 사진작가로 목회자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멀티플레이어로 암환자 치료식으로 개발한 ‘황성주생식’으로 유명하다. 현재는 사랑의병원 병원장, ㈜이름 통합의학연구소 연구원장, 대한암협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또한 국제 사랑의봉사단 설립자이자 국제대표이며, 꿈의학교 이사장, 꿈이있는교회 담임 목사.

둘째 셋째 날 강사 마이클조 선교사는 IM선교회 대표이며 IEM국제학교 교장, 한국 다음세대 살리기 운동 본부장, 필리핀 ANTS신학교 학장, IM교회 담임(예장백석대신)으로 사역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7월 정기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 되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7월 정기예배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7월 정기예배가 지난 29일 오전 10시30분 기쁨과영광교회에서 열렸다. 회장 권캐더린 목사는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가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힘쓰며 믿음으로 마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1부 예배는 전희수 목사(상임 고문) 인도로 기도 박성원 목사(사업국장), 특송 크로마하프 연주(김사라 목사 외), 설교 박진하 목사, 합심기도, 축도 라흥채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박진하 목사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마23:1-3)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한점 부끄럼 없기 위해 말씀을 품어야 한다”며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행해야 한다. 둘째,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말은 거창하게 하는데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우리 기아대책이 예수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공동체, 말씀 듣고 실천하는 공동체, 복음 전도하는 공동체, 자랑스런 공동체가 돼 다른 교회나 개인이 참여하기 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합심기도는 SM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 및 회원을 위

해 △결연아동과 후원자들을 위해 △선교사들을 위해(콜롬비아/김혜정 선교사, 페루/김중원 최은실 선교사, 과테말라/장경순 박윤정 선교사, 코트디부아르/김현구 이선미 선교사, 엘살바도르/황영진 황은숙 선교사) 통성으로 기도했다.

2부 회무는 권캐더린 목사 사회로 개회기도 후 박이스라엘 목사(사무총장)가 사역보고했다.

박 사무총장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후원비 및 회비 납부가 잘 되지 않는 가운데, 선교지는 더 열악한 환경”이라며, 특히 과테말라에서 성경 보급하는 사역자가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렸다고 기도를 부탁했다.

이날 권캐더린 목사의 모친 정계천 권사 별세(지난 3월, 향년 94세)를 언급하고 코로나19로 장례에 참석치 못했으나 조의금을 전하며 위로와 함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7월 월례회는 장석진 목사(이사장) 폐회기도로 마쳤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현재 104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breadngospel.org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연례행사인 아동후원의 밤은 11월 29일(주일) 오후 5시 뉴욕에벤에셀선교교회(담임 최창섭 목사)에서 개최된다.

(유원정 기자)



미주장신대와 한직선대 사역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선교지향적 신학교육 비전 맞았다

미주장신대 한직선대와 MOU 체결

미주장로교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와 한국직장선교대학(대표 이재용 목사, 이하 한직선대)은 직장 전문 선교사(사역자) 양성과 앞으로의 사역 공조 및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교환하는 체결식을 지난 7월 17일 실시간 화상으로 체결했다.

이 체결식에는 본교 이상명 목사(총장), 이명철 목사(기획 및 대외협력처장)와 김루빈 목사(학장처장)가 참석했고, 한국 직장선교대학은 서울 종로구 여전도회관에서 한직선대 대표 이재용 목사와 사단법인 한국 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대표회장 손영철 장로와 축하내빈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이상명 총장은 “본교와 한직선대가 이번 사역 협약식을 통해 상호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선교 동반자적 관계를 공고히 다져 나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주장신대 유영기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이중문화의 이해와 수용(International Studies)”을, 김창환 목사는 “영적인 문화적 프론티어선교로서 크로스 오버 직장선교야말로 아브라함의 비전”이라고 축하했다.

미주장신대의 이명철 목사와 김루빈 목사는 “한직선대 학생들을 글로벌 직장선교사로 양육해 졸업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한직선대 대표 이재용 목사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국 안에도 많은 신학교육기관이 있지만 미주장신과 협력하기로 한 것은 다문화, 다인종의 복합 도시인 LA교계에 세워진 미주장신대 이진 선교지향적 신학교육 비전이 한직선대의 사역 비전과 맞기 때문”이라고 밝혔

다.

한직선대는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예하 기관으로 직장선교를 통한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기독교사회문화화조, 교회일치 등 직장선교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평신도 직장선교사 및 직장선교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에서 1988년 3월에 설립한 기관이다.

한직선대는 1995년부터 전도, 양육중심의 교육체제로 전환해 직장에서 실제적인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400여명의 직장선교 사역자를 양육하여 배출했다.

이번 체결식을 통해 한국직장선교대학은 앞으로 직장선교사로 사역할 학생들을 미주장신대 선교학석사(MAICS) 과정에 보내 선교 이론과 실재를 배우게 하는 것은 물론 두 기관의 선교동반자적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할 인재양성과 앞으로 여러 다양한 선교사역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러한 협력 교류는 내년 2021년 봄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박준호 기자)

한미특수교육센터 식료품 마스크 나눔 행사

16일, 23일 2차례 걸쳐 발달장애인 200가정에

한미특수교육센터(소장 로사장)가 지난 7월 16일과 23일 발달장애가정을 위한 식료품 및 마스크 나눔 행사를 가졌다.

16일 애나하임에 소재한 사무실 주차장에서 오픈뱅크후원으로 발달장애가정을 위한 식료품 및 마스크 나눔 행사를

드라이브 스루로 진행해 200가정에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그리고 23일 LA 인근 왕글로브넷 주차장에서 한인 발달장애가정을 위한 식료품과 마스크 나눔 행사를 오픈뱅크의 후원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LA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 100가정에

했다. 김, 쌀국수, 스넥과 거주

정부 발달장애인이 지원한 어린이용 천마스크 100장, 손세정제 등이 담긴 가방을 전달했다. 한미특수교육센터는 코로나 19로 절박한 상황에 놓인 장애가정을 위해 기금모금을 전개했고 지난 3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총 600가정에 식료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박준호 기자)



살롱제일장로교회 담임 최유찬 목사 과테말라 선교사로

살롱제일장로교회 담임 최유찬 목사가 교회를 사임하고 과테말라 선교사로 떠났다. 동 교회는 7월 26일 설립 35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최유찬 목사를 파송했다. 예배 이후 살롱제일장로교회 나성균 목사는 감사와 송별 순서에서 마지막 마무리 순서를 파송기도와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영광스럽고 의미 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사진 왼쪽부터 최유찬 목사부부, 나성균 목사.

(기사제공: 살롱제일장로교회)

상가 방문, 우체통에 전도지/마스크 전달

선미니스트리&GMAN, 2020 미국내 단기선교운동

선미니스트리&GMAN(대표 김정환 선교사)는 2020 미국내 단기선교운동 실시한다.

2020 STM for America라는 이름으로 실시되는 단기선교운동은 코로나 팬데믹의 최대 피해국가, 교회 오픈예배 중단, 비대면 시기,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확산, 영적침체, 전도기회 축소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당하고 있는 코로나 피해 가운데 미국의 회개와 영적 각성과 복음전도를 위해 말씀을 뿌리는 전도운동을 전개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정환 선교사는 “코로나팬데믹은 한인교회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맞게 하셨다. 죽음과 두려움의 공포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미국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 시기에 살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교회들과 개인들이 모두 위축되고 있으며 죽음의 공포가 미국을 덮고 있다. 이럴 때 사람들이 말씀 한 구절을 읽게 해서라도 주님이 역사하시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있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번 선교운동 방법은 모든 미국인의 가정들, 개인들, 상가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며 마스크(최고 품질의 한국산)를 전도지(한영)와 함께 한 장씩 포

장해 직접 전달하지 못해도 교회 주위부터 가까호호 방문해 우체통에 넣어주고, 상가의 경우 오픈된 곳에는 직접 방문 전달해주는 것이다.

전달하는 자는 마스크와 1회용 장갑을 끼어야 하며, 얼굴 가리개, 모자 또는 두건 착용해야 한다. 그리고 대면 전달 시 안전거리 6피트를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한 준비위원 모임을 비대면 미팅(Zoom과 SNS 상에서 미팅)으로 하며 대면 미팅은 필요시 운동본부 SON Ministries에서 안전하게 방역 준비해 갖게 된다.

김정환 선교사는 8월부터 단기선교운동을 실시할 것이라며 100개 또는 200개를 목표로 커뮤니티 아웃리치를 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김 선교사는 “교회와 성도들이 우선 가까운 이웃부터 복음전도를 위해 말씀을 뿌리는 국내단기선교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덧붙이며 동참을 호소했다.

이번 전도운동에 사용되는 미국내 전도용 마스크는 한국산 최고품질의 것이고 1장당 70센트이며 선교지용 마스크는 1장당 25센트다.

▲문의: 김정환 선교사 (714)350-6957, sonministry@gmail.com (기사제공: SON Ministries/GMAN)

2020 미국 청교도 이주 400년 기념 특집

“청교도 신앙 회복 및 부흥(復興)” (14) Puritan Restoration and Revival

김경일 목사

(남가주 청교도 이주 400주년 기념 책자 저자 / 남가주행복찬교회담임)



4-2)청교도 신학과 사상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Soli Deo Gloria: to the Glory of God Alone)

청교도들이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대, 소요리 문답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칼빈의 정신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대요리문답(Westminster Larger Catechism)에서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은 무엇인가? 답: 사람의 제일 되며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히 마음을 다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또한 소요리문답(Westminster Shorter Catechism)에서도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명확히 정리하고 있다.

청교도들이 교리교육에서 최우선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진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볼 때에 청교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학과 사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 그들은 이 진리에 입각하여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청교도들의 실제의 말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토마스 왓슨(Thomas Watson, 1620-1686)은 “모든 사람들의 삶과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야말로 진리의 대강령(大綱領)이다”라고 언급한다. 실제의 청교도들의 설교를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혹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자신과 성품들)을 설교하기에 힘쓴 자들임을 알게 된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지표를 분명

하게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도와주었다. 진정 청교도들은 교회사(教會史) 속에서 가장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며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들이다.

5)청교도 신학과 사상은 “오직 그리스도”(Soli Christus: Christ Alone)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2:20).

청교도 신학과 사상의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Christ Alone)이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十字架)를 뱀도는 신학”이라고 일컬어진다. 이 진리도 동일하게 종교 개혁자들의 사상과 신학을 근간(根幹)으로 하고 있다. 이렇듯 종교개혁자들(Protestant Reformers)은 신학과 사상의 중심(中心)이 오직 그리스도였다.

“마리아와 성자들의 중보는 사족(蛇足) 즉, 군더더기에 불과하며, 사제들의 중보적 역할도 그 필요성이 전무하다. 인간의 공덕체제(功德切諦)로서의 성례전을 부정하며, 미사의 피 없는 희생제사 제도를 배격(排擊)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단번에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으며, 인류 구원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리스도만이 인간 구원의 소망이다”라고 하여 그리스도 중심 사상과 신학을 전개하였다.

특히 루터(Martin Luther)의 ‘십자가 신학(神學)’은 구원

기본이며, 모든 것들은 메시아를 지시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현현(顯現)이며, 그리스도의 비하(卑下, Humiliation)의 신분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승귀(昇貴, Exaltation)’의 신분이 강조되어 있다. 즉 칼빈은 그리스도의 왕의 권능적 위엄을 강조했던 것이다.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경은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처럼 청교도들의 신학과 사상에서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청교도(淸教徒)들은 성경에 묘사(描寫)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굳게 붙든 자들이다.



교리교육의 최우선은 하나님 영광을 주목적으로 하는 삶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뱀도는 신학”

이것은 칼빈(John Calvin)에게 있어서 더욱 분명하다. 그는 “세계사의 중심적 전환점(轉換點)은 그리스도이다”라고 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대 섭리사역인 구속활동을 행하신다.

칼빈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구속사관(救贖史觀)을 언급하는데, 즉 메시아(Messiah) 사상이 역사 속의 종교의 기초,

성경적이며, 하나님을 모독(冒瀆)하는 행위인 수장령(Acts of Supremacy, 首長令)과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 Divine Right of Kings)을 통렬히 비난(非難)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만 교회의 머리되심을 확고히 붙들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榮光)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다 간 믿음의 사람이다.

이와 같이 그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고 있었고 가혹한 핍박(逼迫)과 고통(苦痛)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되심을 확고히 붙들고 있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루터포드의 사역과 영

성(靈性)은 수많은 스코틀랜드(Scotland)의 영혼들을 깨우쳤고, 영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큰 영향력을 끼쳤다. 루터포드(Rutherford)에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다스리시며 인간의 모든 일들을 통솔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그 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든, 아니든 반드시 순종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1661년에 그는 심판과 사형 집행을 위해 왕의 소환을 받고 가는 도중에 세상을 떠났다. 그때 그가 정부 관리에게 “나는 더욱 높은 재판관(裁判官)과 법정(法廷)으로부터 출두 명령을 받았다고 전하시오.” 그리고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 잘 것이요. 그리고 내가 깰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면서 만족(滿足)할 것이요”라고, 숨을 거두었다.

할렐루야! 그렇다. 하늘에서 영생(永生)을 누리리라는 확신(確信)은 청교도들에게 고난과 죽음을 기쁨(喜樂, Xarap)으로 맞이할 엘랑비탈(Elan Vital) 즉, 생명의 약동성(躍動性)을 주는 근원적인 힘이 된다. 이렇게 청교도들은 순교(殉教)를 각오하며 그리스도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구원의 유일한 길로 여겼으

며, 죄(罪)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주신 그리스도를 순교적 자세로 사랑하며 충성(忠誠)했다. 윌리엄 퍼킨슨(William Perkins, 1558-1602)은 예언의 기술에서 “설교 문제의 심장(心臟)은 이것이다. 그리스도를 찬송(讚頌)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한 그리스도를 설교(說教)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설교, 그리고 삶의 방향에 있어서 철저(徹底)하게 그리스도 중심적(中心的)이었다. 이렇듯 청교 kimjyoh@hotmail.com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0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4.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회장 조명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추천도서: 자유로운 영혼의 노래를 부르며, 모두 거짓말을 한다, 침묵, 말그릇, 독특한 사람들의 명칭한 선택. 후원: 기독교서점협회, 기독교서적, 두란노서원, 말씀사, 베델서적, www.koramdeo.com, www.duranno.us, www.lifebook.co.kr, bethelbook@hotmail.com, 북음사 562-865-4949, 도르가 서점 714-636-7430

‘교회와 국가위한 1·1·1 기도 캠페인’

한장총, 비대면 매일 정보1분 기도 등 10월 31일까지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대표회장 김수읍 목사)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한 1·1·1 기도 캠페인을 진행한다. 28일 밝혔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기도 캠페인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이어

진다. 1·1·1 기도 캠페인은 매일 정오에 1분 이상 기도, 1주일에 한 끼 이상 금식기도, 매달 하루 금식 기도를 하자는 취지다. 한장총은 지난 2월 26개 회원 교단과 함께 미스바 구국기도회

를 시작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모이는 게 어려워지면서 비대면 기도 캠페인으로 전환했다.

김수읍 목사는 “그동안 미스바 구국기도회를 통해 거룩한 한국교회를 바라며 기도해 왔다”면서 “코로나19로 모이기 어려운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자”고 말했다.

고난 받는 종·피해자 코스프레로 결속 다질 듯

신천지 이만희 교주 구속, 향후 쟁점·전망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주가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신천지가 소유의 교주 부채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신천지가 당장 붕괴하기보다는 책임을 외부에 전가하며 내부 결속과 준비에 나설 것으로 예측했다. 신천지 탈퇴를 고민 중인 신도들을 적극 설득하고 추가 고발을 통해 신천지의 비위를 더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명철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방해와 신천지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이 교주에게 청구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조작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 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재지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현대종교 이사장 탁지일 부산 장신대 교수는 “이 교주의 구속이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에겐 안도감을 줄 것이고, 신천지 탈퇴를 고민하는 신도들에겐 결단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신천지의 성쇠에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분

석했다. 그러나 이전에 구속됐던 이만·사이비 교주의 사례에 비춰 볼 때 신천지의 붕괴로 바로 이어지기보다는 내부적으로 교리를 수정하며 교주 구속을 합리화하고 조직을 정비할 것으로 봤다.

신현욱 구리이단상담소장도 신천지의 급진적 변화와 분열을 예상하긴 힘들다고 봤다. 신 소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고령인 이 교주가 죽기 전에는 내부 혼란이나 권력 다툼은 없을 것”이라며 “이 교주의 구속이 신천지 지도부와 신도들에게 줄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극단적 내부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 교주가 원적으로 지시하며 통제함으로써 권력 부재에 따른 혼란을 줄이려 할 것이라 이야기다. 최근 몇 달간 이어진 위기로 이 교주에 대한 신뢰를 잃은 신도들이 상당수 탈퇴해 신천지에는 충성도 높은 신도들이 주로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른미디어 대표 조민음 목사는 신천지가 공격의 대상을 정해 책임을 전가하는 ‘피해자 코스프레(흉내)’에 나설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이만·사이비 집단이 위기를 만났을 때 신도들을 규합하기 위해 사용해 온 방법이다. 조 목사는 최근 신천지가 추미애 법무 장관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

은 점을 예로 들었다. 최근 공개된 신천지 내부 교육영상엔 한 간부가 추 장관의 탄핵 청원에 동참하자며 내부 회의를 주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조 목사는 또 신천지 지도부가 이 교주를 신도들 대신 고난당하는 종으로 묘사해 신도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며 결속을 다질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1일 낸 의견문에서 “이 교주의 구속 결정은 고통 가운데 가혹한 자녀를 찾으려 거리를 뛰어다닌 부모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며 “종교사기에 빠진 20만명의 신도들에게도 자신의 인생을 찾을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사법 당국을 향해서는 “신천지 지도부의 범죄행각을 낱알이 파헤쳐 종교사기 집단에 의한 피해가 다시는 양산되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해 달라”며 “범죄로 은닉한 재산을 환수해 신천지 해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요청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 엄승욱 총무는 “종교를 방자한 사기, 학원법 위반, 범죄단체조직죄, 조세탈루 등 신천지가 받는 의혹에 피해자들의 후속 조치, 즉 제대로 된 추가 고소·고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피연은 신천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인 ‘청춘반환소송’을 확대할 예정이다. 사이비 종교 규제를 위한 입법 청원 운동에도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19 새로운 기독교 교육 모색

좋은교사운동 ‘특별한 기독교사대회’ 온라인 진행

기독교사연합 좋은교사운동은 3-5일 온라인으로 ‘특별한 기독교사대회’를 개최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시대 문제와 교육 회복에 필요한 교사의 역할을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1988년부터 2년마다 기독교사대회를 진행했다. 올해는 4일부터

7일까지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2020기독교사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자 온라인으로 방식을 바꿔 ‘특별한 기독교사대회’로 대체하기로 했다.

올해 대회엔 참가를 희망한

200명의 초중고 교사들이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은 줌(Zoom)을 통해 설교와 강의, 소모임을 가졌다. 백석대학교 장동민 교수, 좋은교사운동 김영식 공동대표 등은 ‘여전히, 함께’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좋은교사운동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의 옛 교육문법을 깨고 새로운 교육문법이 절실한 시대라는 점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국내반 운영...국내외 대학 병행 지도

루카스국제학교 코로나 정국 빠르게 대응

코로나19 사태로 국제기독교대 안학교도 비상이 걸렸다. 학생 안전 우려와 비자 발급 제한 등으로 유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유학생 비자 발급을 재개했지만 제한을 두고 있다. 100% 온라인 수강하는 ‘신입 유학생’에게는 일단 비자를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다음 달에야 유학생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

한 국제학교 관계자는 29일 “고3학생들의 가을 학기 진학은 어렵고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고1, 고2 학생들의 해외 유학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고 말했다. 재학생 80%를 해외에 진학시키고 있는 글로벌선진학교 진학지도 관계자도 “올가을 진학은 불가능한 상태다. 온라인 수업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고 미국 아닌 다른 나라의 대학 진학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 관계자는 공식적인 답변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루카스국제학교는 국내 대학 진학지도도 병행하고 있다. 학교는 미국에 있는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와 향

공대 진학을 위해 원어민 강의 위주로 가르치고 있다. 현재 국제반 뿐만 아니라 국내반도 운영한다. 대학별 수시 및 정시대비 물입식 교육, 논술반을 편성했다.

루카스국제학교는 누가복음의 저자 누기를 닮자는 취지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독교 국제대안학교다. 서울 반포 서래마을에 제1캠퍼스, 경기도 과천에 제2캠퍼스를 두고 있다. 1캠퍼스에서는 구자용 이사장의 대치SKY수능학원, 반포대일학원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치수능의대전환원을 부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구 이사장은 “각 학생의 미래를 위해 현실적인 진학지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제인호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의 ‘과학, 창세기의 우주를 만나다’(예스24)와 김정형 장로회신학대 교수의 ‘창조론(새물결플러스)’은 대립 관계로 여겨지는 과학과 종교 간 거리를 좁히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역사 속 애국지사의 발자취를 심도 있게 발굴한 책도 선정됐다. 전경희 국민일보 선임기자의 ‘예수로 산 한국의 인물들(홍성사)’과 임연철 미국 드루대 김리교야 카이브 연구원이 쓴 ‘이야기 사에 리시(신앙과지성사)’다. 전자는 여운형 서재필 남자현 등 기독교 독립운동가의 삶과 신앙을 다룬다면 후자는 유관순 열사 등 후학 양성과 충청 지역 선교에 힘쓴 미국 김리교 선교사 엘리스 사프(한국명 사에리시)의 일대기를 다룬다. 학술부문 종교서적에서는 ‘이

“위로와 희망” ...기독교서적 28권 선정

‘2020 세종도서’ 교양부문 21종·학술부문 7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휩쓴 2020년, 변화와 혼돈을 겪은 우리 사회는 어떤 기독교서적이 주목했을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20년 세종도서’를 보면 기독교를 향한 사회의 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세종도서 교양부문 종교서적 31종 가운데 기독교서적은 21종이 선정됐다. 학술부문 종교서적은 14종 중 7종이 기독교서적이다.

교양부문에선 각박한 시대를 사는 현대인을 위로하는 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영봉 미국와 심튼사목의교회 목사의 ‘가만히 위로하는 마음’(IVP)과 김중

익 세상의소금염산교회 목사가 쓴 ‘고단한 삶에서 부르는 소망의 노래(꿈꾸는인생), 김기석 청과교회 목사의 ‘하나님의 숨을 기다리며(꽃자리)’ 등이 대표적이다. 세 권 모두 일상의 언어로 인생의 고통과 희망의 이유, 기독교 영성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기후 위기, 한국교회에 묻는다(동연)와 ‘스마트폰, 일상이 배가 되다’(CH복스)는 변화하는 사회상 속 기독교의 역할을 논하는 책이다. 그리스도인이 왜 기후 위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지, 스마트폰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방법은 무엇인지 조명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막자”

기독교 법률가들 복음법률가회 창립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안창호 조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 등 기독교 법률가들이 복음법률가회를 만들었다. 복음법률가회는 미국의 ADF(Alliance Defending Freedom) 영국의 크리스천 컨선(Christian concern) 월버포스 아카데미처럼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률가 그룹으로 입법·행정 분석, 법이론 교육 기관이다.

최대권(서울대) 김일수(고려대) 음선필(홍익대) 명재진(충남대) 이상현(숭실대) 법학 교수와 전용태 심동섭 조영길 지영준 변호사 등 200여명은 27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복음법률가회 창립식을 갖고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는 법률자문과 교육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상임대표에 추대된 조배숙 전 국회의원은 “법과 제도에 순종해

야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의 의무”라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사회를 움직이는 법과 제도 기독교 법률가들이 복음법률가회를 만들었다. 복음법률가회는 미국의 ADF(Alliance Defending Freedom) 영국의 크리스천 컨선(Christian concern) 월버포스 아카데미처럼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률가 그룹으로 입법·행정 분석, 법이론 교육 기관이다.

최대권(서울대) 김일수(고려대) 음선필(홍익대) 명재진(충남대) 이상현(숭실대) 법학 교수와 전용태 심동섭 조영길 지영준 변호사 등 200여명은 27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복음법률가회 창립식을 갖고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는 법률자문과 교육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상임대표에 추대된 조배숙 전 국회의원은 “법과 제도에 순종해

을 지키면서 정직과 겸손으로 섬기면 한국사회가 통합의 바른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보장된다”면서 “그런데 차별금지라는 희한한 법으로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사회 기초를 허물려고 한다. 중국 공산당이 나치처럼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견제와 균형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가 되도록 법률가들이 앞장 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창립식에선 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 오정현(사랑의교회) 목사가 영상축사를 보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적극 후원하겠다”고 밝혔다. 복음법률가회는 앞으로 목회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차별금지법의 부당성을 제시할 때 동행해 법적 조언을 할 예정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목회자 800여명, 버스대절 서울 국회 앞 집회

한국성서화운동협의회(대표회장 채영남 목사) 소속 부산 광주 대전 포항 경남 전북 목회자 800여명은 30일 서울 국회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반대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하고 법안폐기를 촉구했다.

채영남 대표회장은 “차별금지법은 언뜻 보면 차별을 금지하는 좋은 법처럼 보인다”면서 “하지만 57조 조항을 꼼꼼하게 분석해보면 가정과 사회를 어지럽히는 악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성서화운동본부 이사장인 이종승 목사도 “이 문제는 종교와 정당, 진보와 보수를 떠나 우리 후손과 가정, 민족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면서 “소수자와 하더라도 공동체 법규를 어기면 비판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게 제대로 된 나라”라고 주장했다.

집회에선 차별금지법이 제정됐을 때 나타난 종교자유 침해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엔에

스)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자들이 교회에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집단소송을 시작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목회자와 교회재산을 거둬 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이, 특히 더불어민주당 기독교원들이 하나님 편에 서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재신 전남성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은 “남녀 이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명시한 차별금지법은 징벌적 손해배상, 진정, 소송 등 지나친 규제를 명시하고 있어 사회의 극단적 분열만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새로운 기독교 교육 모색

좋은교사운동 ‘특별한 기독교사대회’ 온라인 진행

기독교사연합 좋은교사운동은 3-5일 온라인으로 ‘특별한 기독교사대회’를 개최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시대 문제와 교육 회복에 필요한 교사의 역할을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1988년부터 2년마다 기독교사대회를 진행했다. 올해는 4일부터

7일까지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2020기독교사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자 온라인으로 방식을 바꿔 ‘특별한 기독교사대회’로 대체하기로 했다.

올해 대회엔 참가를 희망한

국내반 운영...국내외 대학 병행 지도

루카스국제학교 코로나 정국 빠르게 대응

코로나19 사태로 국제기독교대 안학교도 비상이 걸렸다. 학생 안전 우려와 비자 발급 제한 등으로 유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유학생 비자 발급을 재개했지만 제한을 두고 있다. 100% 온라인 수강하는 ‘신입 유학생’에게는 일단 비자를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다음 달에야 유학생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

한 국제학교 관계자는 29일 “고3학생들의 가을 학기 진학은 어렵고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고1, 고2 학생들의 해외 유학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고 말했다. 재학생 80%를 해외에 진학시키고 있는 글로벌선진학교 진학지도 관계자도 “올가을 진학은 불가능한 상태다. 온라인 수업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고 미국 아닌 다른 나라의 대학 진학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 관계자는 공식적인 답변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루카스국제학교는 국내 대학 진학지도도 병행하고 있다. 학교는 미국에 있는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와 향

공대 진학을 위해 원어민 강의 위주로 가르치고 있다. 현재 국제반 뿐만 아니라 국내반도 운영한다. 대학별 수시 및 정시대비 물입식 교육, 논술반을 편성했다.

루카스국제학교는 누가복음의 저자 누기를 닮자는 취지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독교 국제대안학교다. 서울 반포 서래마을에 제1캠퍼스, 경기도 과천에 제2캠퍼스를 두고 있다. 1캠퍼스에서는 구자용 이사장의 대치SKY수능학원, 반포대일학원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치수능의대전환원을 부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구 이사장은 “각 학생의 미래를 위해 현실적인 진학지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위로와 희망” ...기독교서적 28권 선정

‘2020 세종도서’ 교양부문 21종·학술부문 7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휩쓴 2020년, 변화와 혼돈을 겪은 우리 사회는 어떤 기독교서적이 주목했을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20년 세종도서’를 보면 기독교를 향한 사회의 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세종도서 교양부문 종교서적 31종 가운데 기독교서적은 21종이 선정됐다. 학술부문 종교서적은 14종 중 7종이 기독교서적이다.

교양부문에선 각박한 시대를 사는 현대인을 위로하는 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영봉 미국와 심튼사목의교회 목사의 ‘가만히 위로하는 마음’(IVP)과 김중

익 세상의소금염산교회 목사가 쓴 ‘고단한 삶에서 부르는 소망의 노래(꿈꾸는인생), 김기석 청과교회 목사의 ‘하나님의 숨을 기다리며(꽃자리)’ 등이 대표적이다. 세 권 모두 일상의 언어로 인생의 고통과 희망의 이유, 기독교 영성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기후 위기, 한국교회에 묻는다(동연)와 ‘스마트폰, 일상이 배가 되다’(CH복스)는 변화하는 사회상 속 기독교의 역할을 논하는 책이다. 그리스도인이 왜 기후 위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지, 스마트폰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방법은 무엇인지 조명한다.

‘차별금지법 입법촉구 청원’ 불성립

국민동의 뜻언어...반대청원 10만명 채워 심의단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원이 동의자 정원을 채우지 못해 종료됐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개인과 시민단체 등은 지난달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원회에 심의 중이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간 동의자가 10만명 이상일 때 해당 청원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 심의하게 한다.

지영준(법무법인 저스투스) 변호사는 3일 “전 국민의 88.5%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국가인권위의 여론조사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것임을 보여준다”며 “국회는 차별금지법안을 폐기하는 것이 국민 다수의 뜻을 따르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슬람 세계 속 기독교’ ‘예수의 부활’(새물결플러스) 등 새로운 관점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신학서가 선정됐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은 기독교관계에 유의미한 조언도 내놨다. 이들은 총평에서 “신교 200주년을 지향하는 시점에서 한국 기독교의 역량을 충분히 노정할 수 있는 저자의 발굴이 어렵다”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넘어 종교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교양도서가 더 출간될 필요가 있다” “종교는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가운데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종교 제도로 저술된 교양도서는 좀 더 친숙하고 쉬운 언어로 일반인에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의사 잇따라

여야 국회의원들 목회자 만나 “법안 막아내겠다” 약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민홍철 의원, 미래통합당 주호영 윤두현 김용관 홍성준 의원 등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부정적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여야 의원들이 추가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지난 1일 전북 부안 온누리교회에 서 열린 부안군 동서부시찰회 목회자연합 간담회에서 “총선 기간 중 여러 차례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한다고 말해왔다”면서 “동성애는 성경 말씀에 위배되고 하위 개념인 자연의 섭리에도

원회에 심의 중이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간 동의자가 10만명 이상일 때 해당 청원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 심의하게 한다.

지영준(법무법인 저스투스) 변호사는 3일 “전 국민의 88.5%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국가인권위의 여론조사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것임을 보여준다”며 “국회는 차별금지법안을 폐기하는 것이 국민 다수의 뜻을 따르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원실로 차별금지법 서명 요청이 왔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며 돌려보냈다”면서 “동성애와 동성혼은 진보 보수의 개념이 아니다. 성경 말씀에 따른 창조질서의 문제이며, 인간의 보편적 권리인 도덕의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수가 차별금지법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치료하는 것은 한국사회, 교회의 속제”라고 말했다.

선교의 창 (151)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순수문학 장르에 속한 일기(日記)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는 영속성을 띠어야 한다. 선교사는 교회와 단체로부터 타 문화권으로 파송 받은 사명자이다. 선교사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사역이 제한적이며 유한하다. 그렇기에 자칫하면 사역이 당대로 끝날 수 있다. 선교사역이 후대로 맥을 이어가려면 제반 사항에 대해 기록을 한 후 그 노후를 다음 세대에 전승해주어야 한다. 우리 한인 선교사들은 서양 선교사들에 비해 사역적으로 높은 성과가 있으나 기록하고 보존하는 면에서 무척 약하다.

기록의 중요성은 성 어거스틴이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다. 기록물 중 가장 쉽고 순수성을 띤 것은 일기이다. 이는 남에게 보여주지 위한 것이 아니기에 가식이 없다. 자신이 저자요 독자이다. 따라서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오대양 육대륙에서 각자의 선교일기를 쓴다면 본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한인 세계선교의 장래를 위해 대단히 유익한 역사적 자료가 될 것이다.

1. 이순신(李舜臣) 장군의 난중일기: 사천해전

“우수사(右水使)가 오지 않아 홀로 제장들을 거느리고 새

벽에 발진하여 곧장 노랑에 이르니 경상 우수사가 와서 함류하였다. 적이 정박한 곳을 물었더니 사천(泗川) 선창에 있다 하여 곧바로 그곳에 이르렀는데 왜인들은 이미 상륙하여 산 위에 진을 치고 있었고 산 아래에 전선을 줄지어 대놓았

다. 거전(拒戰)이 매우 완강했는데, 나는 제장들을 지휘하여 일시에 돌진하게 하였다. 화살을 비처럼 쏘아댔고 각각의 총통을 쏘아대니 그 대란이 폭풍우레와 같았다. 적의 무리는 두려워하며 달아났는데 화살에 맞은 자가 몇 백인지 부지각수였다. 왜인의 수급을 많이 베었고 적선 십삼 척을 불살랐다. 군관 내대용이 탄환을 맞았을 때, 나 역시 왼쪽 어깨에 탄환을 맞아 등까지 관통했으나 중상에 이르진 않았다”(말씀).

난중일기(亂中日記)는 “전란 중에 쓴 일기”라는 뜻으로 충무공 이순신(李舜臣)이 임진왜란 7년(1592년-1598년) 동안 쓴 것이다. 이는 현재까지도 초고

본 8권 중 7권이 남아서 충남 현충사에 비치되어 있다. 난중 일기는 1962년에 대한민국 국보, 제76호로 지정되었으며 2013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인간의 생사가 달린 전장터에서 거의 매일 기록하여 후세에 전한 난중일기는 우리민족에게 보배로운 유산이 아닐 수 없다.

2. 안네 프랑크(Anne Frank)의 일기

“밖에서는 새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아. 죽음 같은 고요함이 곳곳에 뒤덮여 있어. 그만 깊은 땅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만 같아. 날개가 부러진 채 캄캄한 밤에 혼자 동지를 지키며 노래를 부르는 새 같은 심정이지. 어른들은 도대체 왜 전쟁을 일으킬까요? 어른들은 왜 사이 좋게 지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까요?”(1943). 안네 프랑크는 나치의 유대

불과 몇달전 영양실조와 장티푸스로 사망했다. '안네의 일기'는 가족 중 유일하게 생존한 부친 오토 프랑크에 의해 출간되고 나서 세계 각국 언어로 번역돼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3. 로제타 셔우드 홀(Rosetta Sherwood Hall)의 일기

“깊고 깊었던 물과 바다에서의 여행은 끝나고, 힘써 일할 사역지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이르렀다. 여호와와 눈이 나를 살피고 계심을 느낀다. 그가 나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셨고, 나를 위하여 할 일을 선택해 주셨으며 모든 걱정과 염려를 맡아 주셨다. 이제 그가 나를 행하며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이다. 어찌 내가 행복하지 않겠는가?”(1890년 10월 13일).

이상은 한국에서 2대에 걸쳐 77년 동안 의료선교사로 헌신한 홀 선교사 가족 중 가장

일기는 하루 일과 중 개인적인 느낌이나 사고의 추이에 따라 기록하는 자유로운 산문이다. 이는 글쓴이의 주관적인 진술이 위주가 되므로 대개는 자전적인 기록의 성격을 띠게 된다. 결코 남에게 보이거나 출판하려는 의도 없이 쓴 것이기에 그만큼 진솔한 표현이 이루어진다. 그 형식은 시나 소설처럼 어떠한 제약이나 격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일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통문학양식으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일기는 의도적 변개(變改)가 가해지지 않는 기록으로서 중요시되기도 한다.

일기를 쓰므로 얻어지는 유익은 무엇인가? 저마다 하루를 돌아보며 자기 성찰을 할 수 있게 한다. 감정과 생각을 글로 표현함으로써 바른 인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매일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줄여준다. 불확실한 기억을

있는 글을 쓸 수 있다. 이는 역사적 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문학성으로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일기는 그야말로 부담을 가지면 안 된다. 거미가 거미줄 뽀뽀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내용인즉,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일들을 나열할 필요가 없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꼭 집어 써야 한다. 먼저 제목을 쓰고 한 논지로 디테일하게 언급함이 좋다. 만일 같은 날에 두개 이상의 사건이 있을 때에는 전자와 별개로 제목을 따로 적고 서술해야 한다. 복합적이면 초점이 사라지게 된다. 참고사항으로는 가능한 매일 사료 분량이나 철자 및 문법 등 전통적인 규칙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

맺음 말

성웅(聖雄) 이순신의 난중일기는 428년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전투의 현장 감각과 도전을 주고 있다. 안네의 일기 역시 2차대전시 사랑의 움직임 그늘 아래서 숨죽이며 살았던 그 아픔을 느끼게 한다. 로제타 셔우드 홀의 일기는 한민족을 향한 사명인으로서 본인의 신앙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여기 언급한 세 종류의 일기는 각각 형식과 내용이 다르다. 그러나 독자들을 긴장시키며 잔잔한 감동을 자아내게 한다. 그 힘은 무엇인가?

저들은 생사의 극한 상황에서 영혼의 울림을 글로 표출했기 때문이다. 폐부에서 나온 일기는 이렇게 역사 속에서 빛을 발한다. 선교사는 땅 끝에서 고독한 투쟁을 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하루하루는 바람결에 날리기 아깝다. 순수문학인 일기에 담아야 한다. 그러면 육구슬처럼 선교역사가 꺾어지고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는 영속성을 띠게 될 것이다.

jrson007@hanmail.net

확실하게 해준다. 어휘력과 문장력이 길러진다. 훗날 역사적 자료가 된다.

5. 선교일기 쓰는 법

독일의 문호 괴테(Goethe)는 “가장 민족적인 것이 세계적이다”라고 말했다. 세계적이란 의미는 비교우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각 민족의 고유성, 특수성, 독창성,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얘기이다. 여기서 우리는 세계 성을 논할 때 민족이라는 집합체에서 개인으로 전용해 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선교사는 타문화권이란 독특한 환경에 있기에 개성 있으면서도 영감

일기는 작성자가 작가이면서 동시에 유일한 독자이다. 선교사는 타 문화권에서 여러 문제들에 맞닥뜨리며 고독한 투쟁을 한다. 선교사의 일기는 그 내용에 따라 문학성 및 사료(史料)로서 가치가 크다.

인 박해를 피해 가족과 함께 1942년 7월부터 1944년 8월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좁은 은신처에서 숨어 지냈다. 그녀는 13살이 되던 생일 날 붉은 체크무늬의 일기장을 선물로 받았다. 안네는 일기장에 “키티(Kitty)”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리고 2년 동안 비밀 장소에 숨어 살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키티”에게 낱말로 고백했다. 자유를 갈구하던 그녀는 1944년 8월 4일 밤 밀고를 받은 나치의 비밀경찰 게슈타포에 의해 체포되어 유대인 학살지로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갔다. 안네는 1945년 3월,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먼저 한국에서 사역을 시작한 로제타 셔우드 홀(Rosetta Sherwood Hall, 1865-1951)의 육필일기의 일부분이다. 이 일기에는 100년 전 로제타 선교사가 펼쳤던 구체적인 선교 내용뿐 아니라 함께 일했던 선교사들의 모습과 한국 여성들이 서양 의사의 치료와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 등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당시 로제타 선교사는 일기를 단순히 글자 로만 채운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진과 편지, 실물 자료 등을 첨부했다.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

4. 일기의 특성

드라마 예언서 (4)



김덕수 목사 (하늘소망교회 담임 / 생터사역원 LA지부장)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북방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했던 아모스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아모스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그와 동시대인 말씀을 전했던 요나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25 즈음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시대입니다.

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앗수르는 아람 족속들을 복속시킨 다음에 내부적인 다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국력이 저하되었습니다. 또한 BC 765년에는 큰 역병이 앗수르에 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BC 763년 6월 15일에는 완전 일식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앗수르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앗수르는 여

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도 그 자비를 베푸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요나의 시점’(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요나서를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의 내용

나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앗수르의 수도인 큰 성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은1:1-2).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사람들이 죽었고, BC 763년 6월 15일에는 완전 일식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앗수르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앗수르는 여

사람들이 모여서 이 폭풍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를 알려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제비를 뽑게 되었습시다. 사람들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런 일이 생겼습시다”고 털어놓았습니다(은1:7-10). 폭풍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나는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힘으로 폭풍을 뚫고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애를 썼습시다. 그러나 폭풍은 더 세게 몰아쳤고, 결국 그들은 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제물을 드리며 경배하였습니다(은

하겠습니다(I will say 'Salvation comes from the LORD')'(은2:2-9). 사흘 후 그 물고기는 나를 육지에 토해냈습시다(은2:10).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하신 말씀은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은3:1-2).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이 걸릴 만큼 아주 큰 성읍입니다. 나는 그 성읍에 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것입니다!”(은3:3-4)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시다.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심지어 니느웨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과 짐승들까지 굶

때문에 그들이 재앙을 면했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내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은4:1-3)

하나님께서 나의 불평을 들으시고 “요나야,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니?”라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뒤로하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흑사라도 마을에 재앙이 내리지 않을까 살펴보았습시다(은4:4-5). 그 때 하나님께서 박영쿨을 예비하셔서 나에게 그들을 제궁하셨습니다. 나는 그 박영쿨 때문에 잠 기웠습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영쿨을 시들게 하셨습니다. 따가운 햇볕이 머리 위에 쏟아졌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나는 너무 화가 났고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은4:6-8).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심지어, 기르지도 않은 박영쿨을 너는 그렇게도 아끼지 않니? 그런데 니느웨에 살고 있는 십이만 여명의 사람들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며 나(여러분들)의 대답을 기다리셨습니다(은4:9-11).

이렇게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북방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은 앗수르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열왕기하 17장 이후의 이야기는 남방 유다로 흘러가고, 그 당시 남방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사야 선지서를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dsukim@gmail.com

요나서: 선지자 요나를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보내심 ‘회개하면 구원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하신다’

전히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에 인접해 있는 강대국인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점을 기준으로 약 40년 후(BC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은 앗수르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북방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한 선지자였고(왕하 14:25),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자신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여 그들이 회개한다면, 하

위의 정 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욥바 항구에서 배를 탔습시다(은1:3). 항해를 하는 중 큰 폭풍이 일어나서 내가 타고 있는 배를 덮쳐서 배가 거의 파산되기 직전까지 갔습시다. 뱃사공들은 배에 선착한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서 배를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애를 썼고, 각각의 신들에게 기도를 하면서 안간힘을 썼습시다. 그러나 사실, 나는 그때 그런 난리가 일어난 줄도 모르고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장이 나를 깨우며 ‘이 난리통에 잠이 옵니까? 당신이 믿고 있는 신에게 기도하십시오!’라고 소리쳤습시다(은1:4-6).

1:11-16).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여 도망했던 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그 물고기는 바다에 던져진 나를 삼켰습시다. 나는 삼입 동안이나 그 물고기의 뱃속에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은1:17-2:1). ‘내가 불순종함으로 바다에 던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셨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목소리를 들으셨습시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습시다. 이제 내가 다시 주님을(주의 성령을) 바라보겠습니다. 참으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전파

은 배움을 입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시다(은3:5-10).

나의 예상대로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나는 무척 화가 많이 났습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불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시기에 회개하는 사람들에게서 재앙을 거두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니느웨로 오지 않겠다고 했던 겁니다! 원수와 같은 나라에 내가 복음을 전했기

매일가정예배

허훈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하나님의 사람 말씀대로!(왕하5:13-14)

자존심을 버리고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나야만 장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성도는 자기 생각과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병에 걸려있던 나야만 장군의 삶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뿔을 보내시며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뿔을 매어 달고 놋뿔을 보면 살리라고 하실 때 순종해 놋뿔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오늘도 완전한 순종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화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왕하5:15-16)

하나님의 은혜로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받은 나야만 장군은 집으로 가지 않고 모든 종들과 함께 즉시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물을 엘리사가 극구 사양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의 거룩한

모습을 봅니다. 사실은 엘리사와 선지생도들은 온 나라가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대단히 필요한 때였습니다. 왜 선물을 받지 않았을까요? 엘리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야만 장군 마음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만의 하나 엘리사 역시 돈에는 눈이 어둡구나!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이름만 높이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수 저를 쫓아가서 그에게서 취하리라(왕하5:17-22)

이 시대는 물질만능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돈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은 엘리사와 같이 청렴하고 물질에 끌려 다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나야만 장군은 크게 감동돼 이제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사환 계하시느라 물질 욕심이 생겨 나야만이 가졌던 나병이 옮겨졌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진실한 엘리사의 사환임에도 이렇게 추해 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진정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욕심이 잉태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우리 주님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야겠습니다.

목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왕하5:23-24)

본문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환 계하시느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감당하던 종이었고 엘리사가 들고 있던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는 지팡이로 엘리사 대신 수넵여인의 죽은 아들을 치료하라는 명령을 받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도 평생 문둥병자가 된 것입니다. 엘리사 옆에서 모든 권하고 복을 받아 누리던 사람이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선한 청지기로 섬기는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금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왕하5:25-27)

성도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계하시느라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돈에 눈이 멀어서 엘리사의 이름을 팔아서 나야만 장군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 계하

시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계하시느라 나야만 장군을 쫓아가 계하시를 맞을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벌써 알고 있었고 내가 그곳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성도는 항상 진실해야 합니다.

토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왕하6:1-6)

본문은 성도들의 일상생활 중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엘리사의 이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지생도들이 함께 거하며 말씀을 배우던 처소가 너무 비좁아서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단에서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물에 빠져 버렸습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 도끼가 떠올라서 건지게 된 이적의 사건입니다. 하나님나라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섬기는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계획이라도 모여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먼저 허락 받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3절, "청컨대"는 히브리어로 "기도하다, 부탁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알기쉬운 IT칼럼

NTC(Nike Training Club)



윤승준 (재미있는 IT 대표, IT전문선교사)

저는 치과치료를 위해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원주 문막이라는 곳에 기거하면서 서울 구로동까지 일주일에 두 세 번씩 먼 길을 오가며 치과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한국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는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 최고로 강한 것은 '내일부터 하자'입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하자고 마음먹는 것인데 사실 꾸준한 운동은 체질화 되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2003년부터 한국에 나가서 일 때문에 혼자 살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불규칙한 식사와 스트레스로 몸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당뇨가 심해져 인슐린을 고단위로 맞아야만 했고 눈으로, 치아로 영상이와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건강회복이 우선이었습니다. 새벽기도 후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 산에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죽기 살기로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30분 만에 돌아왔지만 점차 거리를 늘려가기 시작해서 일주일 만에 5마일 코스를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주일을 제외한 매일, 비가 오는 날도, 엄청 추운날도... 이렇게 2년을 다녔더니 3000미터가 넘는 Mt. Baldy도 쉽게 오를 체력이 되었고 6년 정도를 아주 열심히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서 다녔습니다.

이후 사역이 정말 눈코 뜰 수 없을 만큼 바빠지며 뜬금없이 시작하곤 마음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나와 격리가 끝나고 문막으로 들어온 후에는 아주 서서히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집에만 있다 보니 몸무게

도 많이 늘고, 늘어난 뱃살로 고민을 하신다면 오늘 소개해 드리는 앱을 통해 집에서 아주 체계적인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앱의 이름은 NTC입니다. Nike에서 만든 앱인데 Nike Training Club의 약자입니다. 먼저 이 앱에 가입을 하십시오. 이메일을 입력하시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데 이때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비밀번호 요구사항은 영문 대문자, 소문자, 숫자를 포함하여 최소 8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국가를 선택한 후 가입하기를 누릅니다.

다음에 보다 자세한 정보 성별, 주별 운동 횟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메인메뉴가 나오는데 맞춤추천, 탐색, 전문가팁 등이 보일 것입니다. 맞춤 추천에는 여러 가지 추천하는 운동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Wakeup Warmup을 선택하고 다운로드를 눌러야 합니다.

시작을 누르면 안내와 함께 비디오파가 시작됩니다. 이를 따라 하면 됩니다. 자세에 대한 안내가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운동이 끝나면 이것이 기록이 됩니다.

컬렉션에 가면 보다 다양한 운동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강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좌측상단을 누르면 내 프로필을 편집할 수도 있고 설정에 들어가서 내 키, 몸무게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국식 단위 혹은 한국식 단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키와 몸무게에 따라 운동의 강도 등이 조절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헬스센터에서 실행하는 PT(Personal Training)과는 다를 수 있지만 무료로 다양한 운동을 따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아주 좋은 앱임이 분명합니다. 현재 이 앱은 무료입니다. 유료로 전환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앱이니 서둘러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sjyoon7231@gmail.com

전국경찰조직단체, 트럼프 대통령 재선 지지 발표

지난 2008년과 2012년에는 '오바마-조 바이든' 정권을 지지했던 NAPO(National Association of Police Organizations)이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통령 선출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경찰에 대한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 참고로, NAPO는 2016년에는 어떤 후보도 지지 표명을 하지 않았다.

"NAPO" 단체는 1,000개 이상의 경찰조직과 241,000명의 경찰관을 대표하고 있으며 1978년에 설립된 단체다.

NAPO 회장인 마이클 맥헤일은 7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금 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단체 소속 경찰들을 향해 부당하고 부정확한 근거로 비난을 하는 시기인데, 최전방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 남녀 경찰에 대한 당신(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하고도 공개적인 지지에 감사하며 대통령의 지지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지지한다"고 적었다.

NAPO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동의하는 사

항들은 다음과 같이 기재돼 있다.

△법무장관에게 우리 경찰관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과감하게 기도하라고 지시한 점 △경찰관들을 위한 정신건강 및 복지를 위한 법률 제정에 서명한 것 △9/11사태 때 최초로 출동했던 대원들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적 인가 기금 법률에 당신이 옹호해주고 서명한 것 △폭력범죄를 줄이기 위한 안전한 이웃 프로젝트의 재 활성화 △미국의 경찰관들도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당신의 변함없는 인식.

지금 미국의 상황 속에서 NAPO의 결정은 지극히 현명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필요한 것은 경찰의 '해체'가 아니라 '개선'이기 때문이다.

공공의 질서와 치안유지를 위해 경찰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다만 경찰 안에서의 진정성 있고 효과적인 개선책이 만들어져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따름이다.

(www.tvnext.org)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퀸즈장로교회 온라인 2020년 VBS 개최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2020년 VBS가 "Jesus' Power Pulls us Through"라는 주제로 8월 4일부터 사흘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8월 1일에는 온라인으로 등록한 300여 명의 아이들에게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방식으로 티셔츠, 가방, VBS 교재들을 증정했다. 이때 온 모든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과 풍선을 또한 선물로 나눠줬다.

VBS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연령별로 세분화됐으며 찬양, 성경 암송, 공작, 성경공부, 비디오를 통해 다른 나라 친구들 방문 등이 펼쳐졌다.



퀸즈장로교회 2020년 VBS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영아부(Infant)와 유아부(Toddler)는 엄마가 함께 할 수 있는 Mommy & Me VBS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유치부(Pre-Kindergarten)는

한국어도 동시 진행됐으며 유년부(K-2G)와 초등부(3G-5G)는 영어로 찬양과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됐다. 중국어부를 위해 중국어를

사용해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담당사역자 팽정은 전도사는 "부모가 깨어있어야 자녀를 살리고 본인이 살 수 있다. 특히 미성숙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 은혜가 흐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부모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는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생각만이 아닌 정말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여하는 것이다.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다르겠지만 아이들의 마음 문을 열리면 현실세계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원정 기자)

채플린 임상목회 (41)



박동서 목사 (Texas Health Presbyterian 병원 채플린)

Quid Pro Quo

[필자주] 요즘 한국에서는 직장 상사의 성추행과 성폭행의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다시 한번 사회적인 분열과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년 여 전에도 비슷한 일로 인해 미국의 조직 내 성범죄와 가해행위에 대한 대처방안 및 예방책에 대해 칼럼을 쓴 바 있어 독자들을 위해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관공서나 기업뿐 아니라 교회와 신학교 훈련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온통 #MeToo(나도) 열풍이 휩쓸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당했던 한 여배우가 할리우드의 가장 영향력 있는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에게 당하고도 침묵하고 있던 수많은 성추행과 성폭행 피해자들을 향해 SNS 상에 소위 해쉬태그를 붙이면서 급속도로 확산된 현상입니다. 지금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피해 여성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면서 그동안 숨방망이 처별로 범의 망을 피해가며 추행을 계속해온 수많은 남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연예계에서 시작되었지만, 법조계와 정치계, 언론과 교육계, 심지어 종교계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던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이 고발에 참여함으로써 향후 그 여파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걷기 전에 한국과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했지만, 병원 채플린이 되기 위해 마지막으로 꼭 거쳐야 하는 직원 교육용 온라인 과정을 접하기 전까지는 어떤 곳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관한 훈련을 이처럼 체계 있게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병원뿐 아니라, 연방정부와 주정부, 대부분의 공공기관, 학교와 종교단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비영리기관과 우수한 대기업의 신입사원 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 및 법적 조치를 계몽시켜서 이에 따른 조직 구성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그 피해를 방지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육 세부사항 중 하나가 바로 "Quid Pro Quo (QPQ)"입니다. 이 말은 라틴어로, 영어로 굳이 번역하면 "Something for Someth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보상을 기대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QPQ란 표현은 주로 어떤 직장상사가 하위직원에게 자리를 유지하거나 승진, 급여 인상 등을 제안하며 그 대가로 성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되어 온 일종의 성폭력 범죄 용어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드러나고 있는 조직 내 성추행, 성폭행 사태들을 보면 전형적인 Quid Pro Quo 학대사건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커리어를 지키기 위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성폭력의 대상으로 삼고 악행을 반복하면서 육신적, 심리적, 정신적인 깊은 상처를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한국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QPQ와 같은 성적 학대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갖고 있지 못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가히 빙산의 일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규정에 따르면 단 한 번의 QPQ 행위만으로도 병원당국은 그 직원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해임하고 형사조치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갖고 있고, 또 그 사실을 모든 조직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교육시키고 주지시킨다는 점이었습니다.

과연 교회는 이 문제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교계도 이제는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대응이 아닌 조금 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신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실천신학 부문에 이러한 성추행과 성폭행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가르치고, 교단이나 개 교회의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교육과 훈련의 내용을 준비해서 마지막 때에 주의 몸된 교회나 성도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올바르게 목양하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 속 더 큰 은혜와 감동을...

필라 영생장로교회, 온라인 VBS 전가족수양회 개최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마다 많은 사역들이 일시 중지되거나 취소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온라인을 사용해 더욱 풍성하게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담임 백운영 목사)는 이번 여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역들을 현장에서 진행하는 대신 유튜브 영상으로 각 가정을 찾아가는 방식을 진행해 성공적인 열매를 거두고 있다.

먼저 새로운 방식으로 도약을 이뤄내기 위해서 발상의 전환을 시도하며 새로운 여름성경학교(VBS)를 7월 중순에 진행했다. 모든 부교역자와 교사들이 한마음이 돼서 몇 주간 준비모임, 기도모임을 했다. 그 결과 찬양, 율동, 예배 녹화 등 예년의 VBS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했다. 그런데 끝난 후에 반응은 안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격려가 나오고 있다.

Home Package를 각 가정에서 Drive Thru로 받아가고 각 가정서 아빠, 엄마가 자녀들과 함께하는 성경학교는 자녀들에게 더 풍성함을 안겨주었다. 진지하게 기도, 열심히 말씀 듣고, 율동 따라하고, 아빠와 함께 공작과 게임을 하니 자녀들에 가정의 신앙적인 유산을 이어가는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

이번 여름에 단기선교로



나가지는 못했지만 준비한 것보다 더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 각 선교지에서 VBS 영상을 사용하겠다고 퍼가고 있는데 불가리아, 필리핀, 우간다에서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KAPC 총회 산하 교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총회 웹사이트에 링크를 걸어 VBS를 진행하지 못하는 교회들로부터 쓰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계획을 뛰어 넘으시며 선교지에 영상이 대신 방문하여 폭넓게 지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매년 대학 캠퍼스에서 2박

3일로 진행하는 전가족수양회도 올해는 5일간 온라인/오프라인 병행하는 수양회로 전환하고 일찌감치 준비에 들어갔다. 7월 마지막 주에 매 저녁마다 말씀 잔치를 열어 외부 강사를 모시고 풍성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었다. 노진준, 조진모 목사를 강사로 "고난을 넘어서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로 팬데믹과 악탈로 인해 고통을 통과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각 가정과 일터로 온라인을 타고 퍼져가서 팬데믹 속에서도 풍성한 은혜와 도전을 주는 시간이 됐다.

다.

뿐만 아니라 매 저녁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영생 가족들이 영상으로 찬양과 율동을 만들어 보내면 모든 교인이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는 찬양 축제에 모두에게 기쁨을 주었고, 몇년간 진행했던 성극을 다시 보며 그 감동을 받는 시간들도 가졌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이겨낸 간증을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Kahoot 프로그램으로 온 교인이 집에서 성경퀴즈에 참여하는 퀴즈대회는 전광판에 매 질문 이후에 점수가 나타나서 아주 치열한 점전이 이어졌다. 그리고 마지막 날, 찬양의 콜센터는 교회의 솔리스트 몇 분이 대기하다가 교인들의 전화를 받고 신청곡을 불러주는 등 매 저녁마다 새로운 방식으로 전교인 참여 수련회가 진행됐다.

현장에서 하는 수련회보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니 참여도가 월등하게 높았던 것이 이번 수양회의 특징이 된 것이다. 상황이 어려우니 못한다고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고 따라와준 모든 성도들 또한 모든 사역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된 것이다. 한쪽이 막히면 다른 길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다. 내년에는 어떻게 사역들을 더 발전하게 만드실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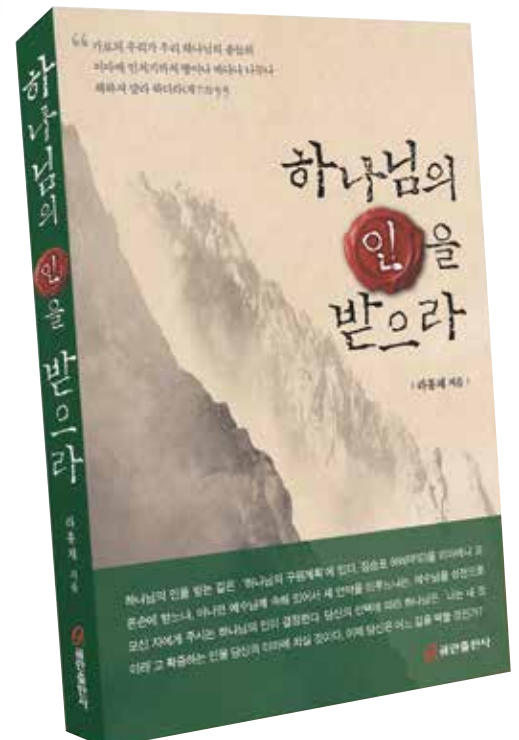
(기사제공: 필라 영생장로교회)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팬데믹 시대의 선교 ... 어떻게 하고 있나?

(4) PGM 선교회

대표 호성기 목사

1세→차세대, 한인→다민족...선교의 지평을 넓혀가다

팬데믹 시대를 지내고 있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오는 8월 13일부터 28일까지 열릴 제 5회 선교사 집중훈련을 준비하고 있는 PGM(Professionals for

Global Missions/대표 호성기 목사)선교회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단체와 사역에 대해 알아보았다.

1998년에 설립된 PGM 선교회

PGM(Professionals for Global Missions) 선교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지역교회를 개회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로 목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고 지역교회의 지체가 된 모든 성도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만인 선교사로 부르심과 세우심을 받은 선교사임을 깨우치게 하며 이 시대 최급의 선교지가 바로 가정이고 자녀들을 어렵 때부터 선교사로 개회 양육함으로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학으로 세상으로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있다.

뿐만 아니라 한인 1세 주도 선교에서 2, 3세 주도 선교로, 한인선교에서 다민족 선교로 선교의 지평을 세대적, 민족적으로 넓혀 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1998년 11월 필라델피아 회담 임 호성기 목사에 의해 설립됐다.

설립 22년째를 맞고 있는 PGM선교회는 이와 같은 목적(Goal)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적인 핵심가치인 'PGM의 7대 핵심가치'를 세웠다. 이것은 교회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세계선교가 탄생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성경이 이미 선포한 것을 호성기 목사가 정리한 것이다. 이를 두고 PGM선교회는 "호성기 목사가 만든 것이 아니다. 이 성경적, 신학적, 목회적이고 선교적인 7대 핵심가치는 곧 교회본질의 핵심가치요 선교의 핵심가치"라고 성경적인 사역임을 강조하며 "결국, 교회 존재의 목적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으느냐(gather)에 있지 않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느냐(scatter)에 있다. 교회성장에서 교회건강으로의 방향이 수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PGM선교회의 핵심 사역

지난 21년간 PGM 선교회가 감당한 사역을 4가지 중점 사역으로 정리해 설명했다. 첫 번째는 훈련을 요청하는 많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에 들어가(과테말라, 뉴질랜드, 독일, 미국, 멕시코 영국, 오스트리아, 한국, C국, K국 등) 1천5백명 이상의 평신도들을 선교사로 훈련시켜왔다.

둘째, '한인 디아스포라를 뛰어넘는'(beyond korean diaspora) 원주민들을 선교사로 양육, 훈련하여왔다. 특별히 C국, 멕시코, 과테말라 등 남미 여러 나라 및 아프리카 리

242명 전 선교사와 가족, 특별히 자녀들이 함께 전체가 모여 소속감, 정체감, 사역의 협력과 공조를 이뤄오고 있다.

셋째, 평신도들을 은사, 직업별, 존재론적인 전문인 선교사로 양육 훈련해오고 있다 PGM 산하에는 10개의 전문인 선교팀(의료전문인 선교팀, 교육전문인 선교팀, 실업전문인 선교팀, 언론/미디어 전문인 선교



7대 핵심가치 중심, 교회성장에서 교회건강으로 방향 수정 파송 242명 등 8월 온라인으로 5회 선교사 집중훈련 계속

베리아, 중앙아시아 키르키즈스탄 아시아의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에는 원주민 교회에 들어가 현지인들을 선교사로 양육해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안디옥교회에서 이 정책을 수용해 스페니시교회, 다민족교회, 시티교회들을 세웠다.

셋째, 파송한 242명의 선교사의 지속적 양육과 훈련을 매년 권역별 선교사 자체모임으로, 2년에 한번 각 본부 주관으로 권역별선교사 대회, 4년에 한번은 국제본부 주관에서

팀, 예술전문인 선교팀, 금융전문인 선교팀, 선교행정지원 전문인선교팀, 사회복지 전문인선교팀, 스포츠 전문인선교팀 1대1전도 전문인선교팀)이 있다. 현재 242명의 PGM선교사의 전문팀별 선교사의 현황을 목표로 제작해 한눈에 볼 수 있다.

다섯째, 매년 PGM에서 전문인 선교사로 훈련 받고 해외 선교사로 파송 받거나, Here and Now 선교사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2주간의 선교



사 집중훈련을 해왔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온라인으로 훈련하는데 벌써 뉴질랜드, 한국,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평신도들이 8월 달에 있을 훈련에 등록하고 있다.

코로나시대...선교지와 선교사들 위해 기도해야

전 세계가 갑작스럽게 코로나시대를 맞이하면서 스탑(Stop) 사인 앞에서 있다. 미주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도

지역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 발생수의 숫자에 차이는 있지만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PGM선교회도 코로나 시대를 맞아 동일하게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은 바로 242명의 PGM 선교사들과 선교지다.

242명의 선교사가 있는 곳에 매년 PGM의 모판 교회인 필라델피아 안디옥교회(500명 이상 단기선교에 참여)와 PGM 회원교회들이 함께 협력해 선교에 참여해왔지만 완전히 정지됐다.

선교사케어에도 한계가 있지만 파송 선교사들에게 특별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 가운데도 감사한 것은 코로나 이전부터 PGM이 강조한 것, 즉 선교는 해외선교만이 아니라 here and now선교도 똑같이 중요함을 확실히 인식하기에 가정, 직장, 사업장 및 지역사회 선교에 집중하고 있다

팬데믹 속에서도 선교는 멈추지 않을 것

팬데믹 속에서도 선교는 멈추지 않을 것

그러나 분명한 것은 팬데믹 속에서도 선교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다. PGM선교회는 여전히 선교사 집중훈련과 유럽아프리카 권역, 아시아권역, 중남미 권역, 북미주 권역 등 권역별 선교대회 등과 훈련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안디옥교회가 세운 스

PGM선교사 집중훈련 초대의 글

전 세계가 코로나블루를 겪고 있다. 코로나블루는 '코로나19'와 '블루(우울감)'의 합성어라고 한다. 공식적인 병명은 아니지만 그만큼 전 세계가 불안함 감정과 우울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다. 세상의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멈춰서는 안 된다.

올해는 청교도들이 1620년

에 메릴랜드워를 타고 미국에 온지 400주년 되는 해다. 그들은 그 시절에 무엇을 위해 목숨 건 모험을 했는가? 산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드리기 위해서다. PGM 선교회는 비대면 시대에 여전히 지역교회의 본질 회복으로 나아갈 것이다.

미주크리스천신문을 통해 선교회를 소개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많은 분들이 8월 13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제5회 PGM 선교사 집중훈련에 온라인을 통해 훈련받으시기를 초청한다. 이번 훈련을 통해 일생에 가장 의미 있는 8월을 Covid-19 고난 중에 체험하실 줄 믿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PGM 선교회를 위해 기도를 부탁한다.

(정리: 이성자 기자)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20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항공대학(원): B.S. in Aviation Management/Flights,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MBA) Doctor of Leadership, Ph.D. in Leadership

경영대학(원):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MBA)

리더십대학원: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MBA), Doctor of Leadership, Ph.D. in Leadership

국방대학원: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MBA), Ph.D. in Leadership

상담대학원: M.A. in Counseling, Ph.D. Counseling Psychology

교육대학원: M.A. in Education, M.A. in TESOL, Doctor of Leadership, Ph.D. in Leadership

신학대학(원): B.A. in Theology, Master of Divinity, Doctor of Ministry, Ph.D. in Leadership

음악,문화예술대학원: Master of Music, Doctor of Music, Doctor of Musical Arts, Ph.D. in Leadership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I-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 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 취득 가능
4. 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 가능

▶ VA-APPROVED (현역, 퇴역 미국 군인 및 가족 장학혜택)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학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e@midwest.edu